

PROLOGUE

관광·MICE산업 중심도시 인천을 위해!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SPECIAL

대한민국 MICE산업 발전위해 오늘도 달린다!
 MICE산업,ISO인증 통해 지속가능성까지...
 정책 | 국제회의 복합지구, A부터 Z까지
 MICE로 도약하는 지자체, 청송

PEOPLE

기고 | 컨벤션뷰로, 전시산업 육성에도 눈 돌린다
 NCS기반 교육, MICE산업에 어떤 도움되나

FOCUS

zoom인 | 광주에서 시작되는 문화와 관광MICE의 융합
 여수? 더이상 MICE변방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재밌는 MICE, 김병장의 MICE! NICE!



convention



exhibition



meeting



incentive
 tour



회차별의 꿈과
 함께하는 MICE가진

지역의 노력에 박수를

편집장 노트



연구편집위원장 **윤 유 식**
(경희대 교수)

세계적인 건축, 가구 디자이너인 토마스 샌텔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담백함이 척박했던 스웨덴의 자연환경과 관계가 밀접하다고 설명한다.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그들은 돌이 없어 나무로 만들었고 금이 없을 때는 금빛 나뭇잎을 칠했다며 최소한의 소재와 자재를 활용해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웨덴 디자인의 DNA라는 것이다. 단순·담백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과한 디자인을 시도했을 때는 거의 어김없이 실패했다고 털어놓았다.

세계 각국은 MICE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 MICE산업도 최근 몇 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에 취해 외형 성장에 집착하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할 태도다.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잘 드러내 질적으로 도약할 것인가 고심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MICE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필요하되 오늘의 성과보다 내일의 비전을 더 챙겨야 할 것이다.

이번 『The MICE』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협회 회원사의 노력을 특집으로 담아 질적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소개했다. ISO표준인증은 이벤트의 지속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컨벤션업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 4년 만에 부활한 인천관광공사를 방문, 황준기 신임 대표가 생각하는 지역 관광·MICE산업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 외국인의 한국 방문 관문에 위치한 인천은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조직 안정을 바탕으로 업계와 시민간의 소통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정책 사례로는 아시아의 다보스를 향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송군의 다양한 시도를 전달한다. 또 최근 시행령까지 제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과 집적 시설의 규모, 지정요건 등을 살펴보았다. 최적화된 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MPI World Education Congress 참관기도 독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분 개관에 이어 11월 정식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를 21세기 아시아 문화를 선도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만㎡에 달하는 거대한 복합문화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한 문화의 창(窓)이자 세계 문화인의 집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고 심평식 여수박람회재단 이사장을 만나 MICE산업 중심지를 꿈꾸고 있는 여수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The MICE』는 앞으로도 업계 곳곳의 소식 전달뿐만 아니라 주요 사안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계간 더 마이스 통권 제33호

발행 (사)한국MICE협회
 발행일 2015년 10월 28일
 발행인 김응수

편집위원장 윤유식
 편집위원
 강다운, 권명희, 김대환
 김민혜, 김현, 서영호
 신동재, 신정미, 오세훈
 정정숙, 조진훈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15층
 (사)한국MICE협회
 TEL 02-3476-8325
 FAX 02-3476-8449

편집 및 디자인
 (주)오버리지(02-6000-6713)

MICE는 세상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튼튼한 파트너입니다.

세계인이 만나는 드넓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내일을 만들어가시길 지원합니다.



Special

- 10 특집_1 한류문화창조포럼
한국MICE 서포터즈 네트워크샵
- 14 특집_2 ISO 인증, MICE산업 지속가능성에 필수
- 16 MICE 사례분석 현대차그룹, 글로벌신규딜러대회
- 18 정책_1 아시아의 다보스를 향한 청송의 꿈
- 20 정책_2 국제회의의 복합지구, 집적시설 입법기준
- 23 글로벌 선진컨벤션 참가후기
(MPI World Education Congress)

Prologue

- 01 편집장노트
- 04 만나고 싶었습니다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 08 News briefing

People

- 28 회원사탐방_1 아이시글로벌
- 30 회원사탐방_2 피알존
- 32 회원사탐방_3 화제인
- 34 회원사탐방_4 렌탈은행
- 36 회원사탐방_5 화인투어
- 38 기고_1 제주의 전산업 육성과 제주컨벤션뷰로
- 40 기고_2 NCS통한 MICE산업 전문인력 양성



Focus

- 43 유니크 베뉴
- 48 유니크 투어 순천만갈대축제, 순천만국가정원
- 50 인사이트
- 58 줌인_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60 줌인_2 여수세계박람회재단
- 62 줌인_3 토크쇼, 김병장의 미스(MICE)! 나이스(NICE)!
- 64 해외저널 유연한 대응으로 매력과 비즈니스를 확대

Communication

- 66 칭찬릴레이 최용신 더플라자호텔 팀장
김영철 키멕스그룹 대표
- 68 MICE Day MICE Calendar
- 72 MICE Lounge 신규회원사



“산업 중심으로
조직 개편, 기관-시민간
소통 이끌어
관광·MICE산업
도약할 것”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세계 최고 공항과 대형 항만시설이 있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 바다, 섬, 산 그리고 마천루가 가득한 신도심까지 천혜의 관광자원이 가득해 자연의 힐링과 도심의 즐거움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 인천. 다양한 관광자원이 가득한 인천 관광산업 발전에 앞장 설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9월 설립됐다. 약 4년 만에 부활한 인천관광공사를 이끌어 갈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을 만나 인천관광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4년 만에 다시 설립되는 인천관광공사의 수장으로 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장은 눈부시다.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는 2007년 645만 명에서 지난해 1400만 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인천의 관광산업은 전체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천관광경험률이 2007년 19.1%에서 2013년 7.8%로 감소하는 등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관광공사가 없던 지난 4년간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 본부로 축소되어 관련부처 공무원, 지역 업체, 시민 등과 민관이 힘을 합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여러 조직에서 추진하다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다. 지난 노력이 더욱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인천관광공사가 앞장서겠다.”

인천관광공사가 지향하는 점은 무엇인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관광 추진체계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사·중복되는 관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통폐합하여,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관광정책의 성공에 기여해 인천관광산업 발전 선도기구를 지향하고 있다.

창조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콘텐츠디벨로퍼’이자 이를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활성화하는 ‘마케터 및 프로모터’, 다양한 관광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 장이 되는 ‘플랫폼’, 그리고 인천관광 전문 인력 및 창조 관광기업 등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사인 만큼 공익적 관광진흥사업을 통한 재원을 다각화하고 시 재정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수익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관광산업에서 인천의 현재를 평가한다면

“인천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바다, 섬, 송도국제도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가득한 곳이다. 그럼에도 머무르는 기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서울과 인접해 대부분 관광객들이 인천을 지나 서울에서 관광을 즐기는 실정이다. 높은 접근성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현 상황에서 우리만의 관광자원, 콘텐츠 개발과 브랜드 확립이 중요해 보인다. 인천은 대도시이면서도 주요 관광자원이 모여 있다. 굉장한 강점이다. 차이나





타운, 신포국제시장, 월미도 등 원도심지역, 강화를 중심으로 도서지역, 역사적 이야기와 지하상가 등 특색을 가진 부평지역, 대한민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멋있게 성장해나가는 송도까지. 대한민국 근대 역사를 간직한 개항지로서 역사성은 물론 천혜의 관광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한다면, 인천은 꼭 방문해야 하는 관광지로서 가치를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자원을 어떻게 산업 발전으로 이끌어내는가가 중요하네.

“옳은 얘기다. 관광상품 개발 및 자원 개발, 도시마케팅, 교육·연구·컨설팅 사업, 국제교류관련 사업, 의료관광사업, 체육시설업 및 스포츠연계 관광사업, 문화예술연계 관광사업,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과 협력·지원, MICE사업 등 관광산업 내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인천 관광산업의 보다 효율적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힘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관광사업본부,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 등 분산됐던 조직을 인천관광공사 내 1본부 1실 3처 1단 12팀으로 구성했다. 우선 조직 안정화를 위해 기존에 맡아오던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 같은 안정적 조직 아래 향후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광개발과 함께 MICE산업 성장에도 기대가 크다

“인천은 물류, 항공, 바이오, 첨단자동차, 녹색금융, 관광, 로봇, 뷰티 등을 8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에 나서고 있다. MICE산업은 8대 전략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산업이다. 8대 전략산업 분야별 시 관련 부서와 공사가 공동으로 지역특화 전시회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컨벤션 역시 전략산업과 연계해, 대표컨벤션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컨벤션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에는 송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기구가 입점해 있어 지역특화 컨벤션을 육성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MICE산업은 다른 관광과 달리 컨벤션시설이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인천은 송도컨벤시아라는 대표선수를 갖고 있으므로 MICE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잡혀 있다. 현재 송도컨벤시아는 2018년 2단계 건립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하드웨어 발전과 함께 얼라이언스 운영체제 개편, 유니크베뉴발굴, 인센티브 유치 집중, 공동 홍보마케팅 등 소프트웨어적 발전 요소 역시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산업 주체 및 종사자, 시민과 호흡이 중요할텐데.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인천관광공사 혼자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천이 갖고 있

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인천을 대표할 브랜드로 만들고 이를 널리 알려, 방문한 관광객들이 인천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인천시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관광지의 경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다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도보 정비, 지역 안내지도 설치 등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관광지역 상인들의 보다 친절환대, 맛있고 깨끗한 음식 등 좋은 서비스제공, 마지막으로 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들의 동참이 어울려 질 때 진정한 관광산업 발전이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관광공사는 이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 의견이 교류되는 소통의 장 '인천관광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직원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직원들과 대화할 때면 언제나 ‘즐거움’을 강조한다. 관광이란 즐거움을 전하는 것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즐겁지 않고서 다른 이들에게 즐거움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즐거움이란 강요해서 심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직원들의 즐거움을 늘 고민하는 조직의 수장이

되겠다. 우리 한 번 인천관광을 위해 신명나게 뛰어 보자는 메시지를 이 자리를 빌어 전달하고 싶다.

시민들에게는 많은 응원과 함께 질책을 부탁한다. 우선, 인천시민 스스로가 인천을 사랑해야 다른 지역 시민들도 인천을 좋아할 것이란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가 먼저 인천을 즐기고, 이 즐거움을 주변에 전파한다면 분명 관광산업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인천관광공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뜨거운 칭찬과 질책이란 관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노력하는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현장에서 경험한 좋고 나쁜 모든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한다. 열려있는 인천관광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여행은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만나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인데, 인천은 탐구할 것이 많은 곳이다. 인천은 차이나타운, 개항장 등 근대문화의 중심지, 160여개의 크고 작은 섬 관광자원, 국제회의의 목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가득하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천관광공사가 이 무수한 보석들을 잘 갈고 닦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인천에 와서 인천의 매력을 느끼고, 즐기고 다시금 찾고 싶은 도시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

정리·사진 박기범



글로벌 종합 MICE 대행사 도약 노력

에이앤에이컴퍼니, 적극적 해외진출 모색

2000년 창립한 에이앤에이컴퍼니는 최근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애쉬필드, 피코, 킹스맨 등 세계 굴지의 업체들을 제치고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카타르 등의 국가관(330억원) 시공사업을 수주했다.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 6개 국가관의 시공 및 운영에 이어 2017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엑스포’와 2020년 ‘두바이 엑스포’에서도 대형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이앤에이컴퍼니는 지난 5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연평균 20% 증가한 기업인 ‘가젤형기업’으로 선정돼 해외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자금, 정책자금 융자 등의 정부지원을 받게 됐다. 2011년 100억원이던 매출액은 2014년 240억원으로 3년 만에 140%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밀라노엑스포 수주로 330억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앤에이컴퍼니는 이를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로 무장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MICE업계에도 지속가능성 열풍

(주)메씨인터내셔널, 업계 최초 ISO20121 인증

(주)메씨인터내셔널이 국제회의기획사(PCO) 업계 최초로 ISO20121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ISO2012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컨벤션, 이벤트 개최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시스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만든 국제 표준 인증이다.

이 제도는 조직이 계획-실행-점검-개선의 단계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3자가 심사하고 보장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사회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점차 중요하게 인식함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 도입하면서 미래유망산업인 컨벤션 업계에도 표준 인증이 필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기여

2015 MICE신입사원 OJT 2차교육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MICE협회가 주관하는 2015 MICE 신입사원 OJT 2차 교육이 2015년 11월 25일(수)부터 11월 28일(토)까지 4일간 청송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임종합연수원에서 개최된다. 매년 2회씩 개최되는 MICE 신입사원 OJT 교육은 MICE업계 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을 실시하여 신입직원들의 빠른 실무적응을 돕고, 인력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제회의 기획과 직접 관련 있는 핵심분야를 선별한 다양한 실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최근 지역 특화 MICE 관광지로 주력하고 있는 청송 현장시찰 및 유니크 투어를 연계함으로써 MICE 신입직원의 지역 연계 대한 인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반을 다질뿐만 아니라 차기 MICE 행사 개최지로서 청송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정보·지식 공유 통한 산업 역량 강화

한·중 MICE Business 포럼

2015~16 한중 관광의 해를 맞이한 양국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MICE산업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인센티브 단체 및 기업회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중 MICE Business 포럼’을 2015년 12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4일간 서울 및 평창 일대에서 개최한다.

(사)한국MICE협회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로써 China MICE Committee 회원사 임원급 50여명과 국내 지자체, 인센티브여행사, PCO 등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요 일정으로는 한중 MICE협회 및 회원사 소개 및 개최 우수사례 발표, 한중 비즈니스 상담회,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답사, 한중 동계올림픽 개최관련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MICE산업 발전을 위해 달린다

한류문화 창조포럼·한국MICE 서포터즈 네트워크샵



한류 콘텐츠 세계화위한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 한류 문화 창조포럼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한류문화창조포럼’이 ‘한류, 그 다음은?’을 주제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하HICO)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류콘텐츠 관련업계, 미디어, MICE업계, 대학생 관광업계 관계자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MICE협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추진하는 MICE산업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한류문화의 지속적인 확대와 성공 방안에 대해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초

청연사들이 한류의 정책과 문제점, 한류 사례들의 실패와 성공담 등을 발표하고 향후 신한류의 체계적인 세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김응수 한국MICE협회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메르스로 인해 힘들었지만 융·복합관광이자 창조관광의 핵심은 MICE산업뿐”이라며 “MICE가 각 지역단체별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기에 우리가 시·군·관련단체·민간기업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류하며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한류문화가 침체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한류문화의 경험담을 듣고 한류 콘텐츠의 세계화 방안 모색의 자리가 됐다”며 “2015년 경주 실크로드 축제개최에 앞서 한류문화의 콘텐츠와 MICE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장은 “경주가 한류의

새로운 문화의 유치 업계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며 “MICE업계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한류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째 날, 기조강연에 나선 장규수 대경대 교수는 한류 다움에 대한 정의, 한류콘텐츠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한류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장 교수는 “한류에 속한 영화·드라마·게임·패션·MICE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유통망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라며 “유통 전문가가 너무 부족해 국내의 아이돌 가수들이 콘서트, 관련 행사를 많이 해도 해외에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내이익을 낼 수 있는 유통창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교수는 “유통 시스템이 없는 현재의 시장구조로는 한류의 지속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중국에 밀릴 수도 있다”며 “한류 고유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시장 확대와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자체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류 특별세션을 맡은 박성현 영산대 교수는 한류의 현황과 경쟁력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정부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최근 중국이 자국 콘텐츠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 드라마의 황금시간대 방영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도 반한 감정이 거세지는 등 한류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기존 한류시장에서 반한류 분위기가 조성된 데는 한국이 다른 문화에 배타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VC사업팀 국내사업 PM은 한류성공사례로 한류와 ICT를 결합한 사례인 K-LIVE 홀로그램 콘서트를 소개하며 새로운 디지털 문화창조방안과 한류의 발전방향들을 제안했다.

김 부장은 “K-LIVE 콘서트는 실제 한류 스타를 만나고, 만지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넣었기에 해외 관광객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류 스타와 교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 후에는 정동극장 경주에서 ‘바실라’를 관람했다. ‘바실라’는 기존 역사콘텐츠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연 장르를 반영한 공연으로 신라와 페르시아를 소재로 고대 신라의 국제성을 보여주는 공연이었다.

20일 둘째 날에는 고종석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사무국장이 ‘한국 대중음악 100년사의 주요 흐름’을 주제로 강연했고, 한범수 경기대 교수는 ‘한류 문화 콘텐츠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라는 주제로 한류 문화콘텐츠의 현황과 파급효과, 향후 거점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최종식 KJC communications 대표는 ‘에디슨 브랜드를 예로 보는 한류 그 다음’을 주제로 한류의 성공사례를 강연했다. 그는 KJC의 에디슨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및 성공사례를 통해 보는 한류브랜드의 해외 성공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본 행사는 한류드림페스티벌 기간과 동시에 개최되어 실크로드 경주엑스포를 축하하는 사이니, 카라, 씨스타 등 국내 유명한 가수들의 K-POP Concert 공연 관람도 진행됐다. ★

글·사진 한영선



“참신함으로 MICE산업 미래 견인한다”

한국 Young MICE 서포터즈 네트워크샵 개최

MICE산업 육성과 청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MICE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대학생 및 구직희망자들은 구직 전 MICE 산업을 경험할 수 있고 MICE기업이나 단체도 인지도 및 인턴십 확대라는 점에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이다.

현재 경기 G-MICEters, 광주 MICE하모니, 가온누리

제주MICE서포터즈, 강원MICE서포터즈, 경남MICE루키, 경주MICE서포터즈, 대전MICE서포터즈, 부산 Young MICE단, 서울MICE서포터즈 등이 운영되고 있다.

서포터즈간의 의견 교환, 아이디어 공유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한 MICE산업 인식 제고와 인적자원 육성 발판을 삼기위한 ‘한국 Young MICE 서포터즈 네트워크샵’이 지난 9월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한국MICE협회 주최로 경주에서 열렸다. 전국 마이스 서포터즈 200명이 참석한 네트워크샵 행사는 기조강연, 토크쇼, 경연대회, 네트워킹, 경주지역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첫날인 27일 열린 개회식에서 김응수 한국MICE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MICE산업 역군이 될 전국 MICE서포터즈 여러분의 행사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들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호 HICO 본부장은 축사에서 “서포터즈 활동은 MICE산업의 미래역군으로 역할을 키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





라 경주에 좋은 기억을 쌓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기현 한국관광공사 MICE실장은 “MICE업계로서는 서포터즈 여러분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MICE협회, 지역 컨벤션뷰로들과 함께 MICE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조강연 발표자로 나선 석재민 인터컴 부사장은 “인터컴이 주최해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세계지식포럼은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서 다양한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 등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면서 우리나라 인지도 및 이미지가 개선된 효과가 발생했다. 워낙 성공적으로 회의를 마무리짓다보니 2014년 미얀마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될 때 서비스 교육을 통한 노하우 수출 등 파생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석 부사장은 “작년 크던 국내에서 행사가 개최되면 전세계 참석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게 된다. 행

사 최일선에서 참석자들과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은 단순한 진행요원이 아닌 민간 외교관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선우 한국경제신문 기자의 ‘미디어가 바라보는 마이스’라는 주제의 강연이 이어졌다.

MICE 경연대회에서는 평소 닦아왔던 MICE관련 지식을 토대로 ‘서포터즈 활동운영 사례 발표’, ‘자체 행사 기획’,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네트워킹·자기개발 사례 발표’ 등이 지역별로 발표됐다.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면서 서포터즈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완벽한 준비를 위해 일과시간 이후에도 발표를 준비한 부산 마이스 서포터즈는 “부산의 마이스 역량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첫날 오후에는 MICE를 주제로 하는 토크쇼 ‘김병장의 MICE! NICE!’가 진행됐다. 개그맨 김성규·현병수와 장선영 한국경제TV 아나운서가 진행한 토크쇼는 “MICE는 어렵지 않다. 우리가 주위에서 알고 있었지만 모르고 넘어간 것 뿐이다”(장선영)는 말처럼 MICE를 친숙하게 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저녁식사 후 진행된 MICE네트워킹 및 단합대회는 자기소개 및 간단한 게임 형태로 진행하면서 지역별 서포터즈들의 네트워크 강화라는 목적에 맞게끔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둘째날인 28일 오전에는 전날 갈고닦은 MICE경연대회 발표 후 거행된 시상식에서는 부산 영마이스단(최우수상), S.O.M, 전국대학생연합 컨벤션 동아리(우수상), 서울MICE서포터즈(장려상) 등이 선정됐다. 오후에는 경주 HICO 답사 및 관광프로그램 등 일정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이승우 한국MICE협회 담당자는 “눈에 보이는 산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MICE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발전에도 관심을 가질 때”라며 “향후에도 전국단위 마이스 서포터즈 행사를 개최해 지역 서포터즈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내 마이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제 대전 MICE서포터즈는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다른 지역 서포터즈들과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며 “이러한 유형의 행사가 많이 개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글·사진 박태진

MICE산업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MICE가 창출하는 각종 파급효과는 개최지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업계는 산업성장 뿐만 아니라 의식적, 문화적 진보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최근 업계 곳곳에서 질적 성장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 8월 대구컨벤션관광부러와 (주)메씨인터내셔널은 국내 최초로 ISO2012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제3차 국제회의 산업 육성계획' 상에서 '친환경 국제회의 육성' 계획을 밝히고 한국관광공사가 '한국형 지속가능한 MICE 표준 경영시스템'을 개발한데 이은 실제적 성과다.

ISO20121인증은 이벤트산업을 위한 국제표준이다. 그동안 MICE업계엔 시설중심의 하드웨어적 표준인증제도만이 통용되고 있었다. 이벤트에 집중한 이번 표준인증은 질적 성장의 사례로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요구하는 기준(지속가능발전 원칙, 가치, 규정 등)을 준수하고, 국제행사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체계적 경영시스템 구축 후, 이를 ISO(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심사 받아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대상은 정부 및 공공기관, 협회 및 기타 행사주최단체와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 메뉴를 비롯해 행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PCO, PEO, 렌탈, 숙박, 식음료, 수송, 관광마케팅 조직, 컨벤션부러 등을 아우른다.

MICE산업, 발전을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국내 ISO20121인증 탄생

기관 및 업계서 나란히 취득...
질적 성장 기대



ISO20121은 이벤트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지속가능성에 비춘다. 행사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예방하고 행사에서 파생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행사성과를 최대로 올릴 실제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SO20121은 2012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됐으며 유럽, 미주권에선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아시아에선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등록이 진행된 바 있다. 코카콜라, Croke Park(영국 MICE개최시설), Ignition(진사업체), Fitzers Catering(식음료) 등도 ISO20121 인증에 참여했다.

인증취득에 대한 효과는 에너지·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용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행사개최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규제당국과 지역사회의 반대를 예방하는 위기관리 체계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인증받은 기관 및 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증대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인증취득 영예를 거머쥐게 된 대구컨벤션관광뷰로는 지난 8월28일 대구 MICE진흥센터에서 인증식을 갖고 제1호 타이틀을 확고히 했다. 인증 취득에 앞서 뷰로는 지난 해 2월 지역 MICE업계 40개사와 함께한 ‘사회적책임(CSR)+친환경(Green)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대구에서 개최되는 주요 MICE 행사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MICE 캠페인(Be a Green Man)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개최된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서는 재활용자재를 적극 활용하고 안내배너 최소화 등을 통한 행사 비용절감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생산품 적극 활용을 통해 지역 MICE업계 활성화를 장려했다.

또 친환경 컨벤션 실천서약 캠페인 통한 탄소상쇄숲 조성 ▲어린이 탄소탐정단 운영 ▲지역초등학교 텃밭가꾸기 운영 등을 통해 행사 참가자의 자발적 탄소상쇄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대구컨벤션관광뷰로 관계자는 “이번 ISO20121 인증취득은 행사의 효율적 재정 운영 도모 및 행사참가자 만족도 제고를 통해 대구의 국제행사 유치 경쟁력을 높이



고, MICE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실질적 방법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뷰로는 지역 MICE업계의 지속가능한 MICE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대구가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MICE 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분희 (주)메씨인터내셔널 대표는 “ISO20121 인증제도는 이벤트를 둘러싼 계획, 실행, 점검, 개선의 단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파악해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 주요 목표”라며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심사하고 보장함으로써 업계는 신뢰를 쌓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점차 중요하게 인식함에 따라 미래유망산업인 컨벤션 업계에도 표준 인증이 필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글 강수정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7일부터 12일까지 ‘글로벌 신규딜러 대회 (2015 Global New Dealers Convention)’를 개최하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7월 메르스로 침체된 국내 관광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존 해외에서 개최하던 우수 딜러·소비자 초청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한국을 찾은 딜러 사장단은 올해 새롭게 영입한 우량 딜러를 포함해 최근 영입한 우수 딜러 사장들과 해외 거점의 신규 채용 임원들이다.

전 세계 해외 신규딜러 및 기존 딜러 중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딜러 235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현대차에 대한 브랜드 이해를 위한 본사·시설 방문, 경영층과의 소통, 고객중심경영체득(딜러 컨퍼런스,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해외에서 개

최하던 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내수진작 및 한국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로열티 확보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컨벤션 센터나 호텔 내부의 연회장에서 진행되던 만찬·컨퍼런스 등의 기존의 형식과는 달리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색 테마파티가 행사 3일차에 열려 눈길을 끌었다.

The-K호텔 서울에서 열린 본 행사는 3,300㎡(약 1천 평)의 잔디밭에서 가든파티 형식으로 꾸며졌다. 잔디밭 위의 하얀 원형테이블과 20여 개의 대형 라이트별문, 은은한 조명탑과 구조물들은 한국의 가을 저녁의 정취와 멋스럽게 어우러졌다. 최고급 셰프들이 마련한 뷔페메뉴들과 BBQ파티로 가든 파티의 분위기를 잘 살려냈고, 특

대규모 해외딜러 방문행사 통한 국내 관광경기 활성화 이바지





히 본 행사에는 고급 호텔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메뉴들이 마련되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바로 닭강정, 잡채, 한국식 미니비빔밥, 떡볶이 등의 분식 메뉴들이다. 만찬이면 늘 있었던 고급요리들과는 달리 지금의 한국 문화들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의도에서 기획된 요리들이었다.

H-GARDEN이라는 컨셉으로 구성된 본 행사는 3H(Hyundai, History, Harmony: 현대자동차와 전통문화의 화합의 장)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 G(Generation: 한국의 전통부터 현재까지의 여러 세대의 문화 화합), A(Art : 캐리커처, 사물놀이 등 예술의 향연), R(Relation: 팀 네트워크 및 소통 강화), D(Dinner: 한국 전통 음식과 BBQ, 소맥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먹거리), E(Extraordinary: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하는 테마파티), N(Nature: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가든 파티) 라는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6가지 테마로 기획되어졌다.

한국의 다양한 전통의상을 체험하는 곳에는 임금, 왕비, 관복, 선비, 병졸, 머슴 등의 복장을 체험하고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 마련되어졌고, 한국 전통 놀이 공간에서는 투호, 전문 강사가 직접 시연하고 가르쳐주는 국궁, 널뛰기, 추억의 달고나 등이 준비되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체험은 한방의료체험과 사주체험이었는데, 대장금과 허준을 컨셉으로 한의사가 직접 초빙되어 진맥, 체질분석 및 상담을 해주는 한방의료체험과 역술가를 초청하여 사주와 손금 및 관상을 분석해주는 사주체

험은 참여자들의 호기심어린 눈망울로 긴 줄을 늘어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직접 그려 한복 입은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체험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한류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안무를 배우고 체험하는 곳도 있었다. 강남스타일 댄스 체험은 전문 댄스팀이 K-POP안무를 시연하고 간단한 동작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파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수 있었다.

행사PM인 김민구 현대드림투어 마이스팀 과장은 “기존에 루틴한 일정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현대자동차와 전통문화의 화합을 컨셉으로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테마파티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참가자들도 사주체험, KPOP 댄스·전통문화 체험 등 한국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테마파티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호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문화들이 해외의 손님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즐거운 체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된 본 행사는 기존의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의 행사에만 치중했던 기존 행사들과는 달리 행사 참가자들이 몸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들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 좋은 평가와 호응을 이끌어 낸 것 같다. 본 행사를 시작으로 더 많은 기업행사들이 브랜드 알리기와 충성도 확보에만 급급한 행사보다는, 참가자들의 참여와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브랜드 학습이 될 수 있는 행사들이 더 많이 생기길 기대해 본다. ✨ 김민구 · 현대드림투어 과장

작은 도시의 기적... 아시아의 다보스를 향한 '청송의 꿈'

한동수 청송군수



지식경제 사회로의 진전이 지속되면서 지식과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마이스(MICE) 산업이 대한민국의 21세기를 견인할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총아이자 관광산업의 꽃으로 각광받음에 따라 온 나라가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청송군의 MICE산업

청송군은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지만 지나치는 관광지로만 인식되어 있어 부가가치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청송군은 사과를 주작목으로 하여 가구당 평균 소득이 3천600만원으로 높은 군이지만 1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청송군의 뛰어난 관광자원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콘텐츠 개발이 시급함에 따라 그 방안으로 MICE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청송에 웬 MICE산업? 그것도 오지로 알려진 산골 청송에! 청송에 컨벤션 센터가 있나? 당연한 반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MICE산업이란 화려한 컨벤션센터에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을 유치하여 많은 기업과 사람이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효과를 높이는 것을 MICE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MICE산업에도 역발상이 필요하다. 청송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마이스 산업은 컨벤션 센터를 짓고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는 그런 MICE산업이 아니다. 청송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물론 컨벤션센터도 없다. 생각을 바꾸면 없는 것이 없는 곳이 청송이다. 컨벤션센터도 분명 있다. 청송은 전체가 지붕 없는 컨벤션센터다. 이러한 자연자원과 문화시설을 컨벤션센터로 활용하여 청송군 상황에 맞게 접근하여 청송스런 MICE산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청송스런 MICE산업

청송은 MICE산업의 네 영역 가운데 기업회의(Meeting)와 포상관광(Incentive)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국내·외 관광 또는 기업 회의하면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와 경주 등 주요관광지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이런 곳들은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은 반면, 번잡하고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끝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나라도 관광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시끄럽고 바쁘게만 돌아가던 일상을 벗어나 조용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차분히 기업회의나 포상관광을 진행한다면 힐링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송은 그런 점에서 가장 적합하다. 특히 기업포상관광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송은 절경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슬로시티로 인정받는 곳으로 주왕산국립공원, 주산지, 도예촌, 민예촌, 객주문학마을, 송소·송정·찰방공 종택 등 고택이 모여있는 덕촌마을 등 관광명소와 문화자원,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악마라톤 및 산악자전거 같은 레저스포츠와 농촌체험프로그램은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한 기업회의 연계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신 도청의 배후 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치를 다지고 2016년 당진~영덕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도로의 확장 등으로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확연하게 개선됨에 따라 기업회의와 기업포상관광 등 관광산업 유치 및 선진지 견학, 워크숍 개최 등 MICE산업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송군은 이런 청송만의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13년부터 주왕산 입구에 대규모 한옥 펜션인 '민예촌'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송에서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객주문화관과 아이스클라이밍 아카데미, 청송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산림조합 중앙회 임업인 종합연수원이 2015년 6월에 완공됨에 따라 총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숙박시설과 500여명이 동시에 각종 회의,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또한 대명리조트청송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천2백억 원을 투자해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관광지 7만7천403㎡내에 300여실을 갖춘 콘도미니엄과 아웃도어스파, 체험농장 등의 시설이 완료되면 청송의 숙박시설 부족현상을 완전히 해소함에 따라 청송을 '체류형힐링관광지'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코엑스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코엑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청송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위해 군단위로는 최초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였다.

이러한 매력을 바탕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산업화 한다면 “경관과 역사, 문화가 있는 아시아의 다보스”로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마이스산업의 걸음마를 뒀던 만큼 더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하겠지만, 올해는 청송군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청송마이스산업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다. ✨

국제회의 복합지구 집적시설 입법 기준 설명

김희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신규 제도의 특징

최근에 시행령까지 제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 국제회의집적시설은 시설의 복합화, 집적화를 통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여건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추진된 것이다.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시설과 숙박, 쇼핑, 문화 등 연관 시설의 연계와 집적화가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담겨 있다.

법안 특징을 보면, 국제회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구와 시설을 각각 설정하는 방식은 다른 클러스터 정책사례와 동일하다. 다만 국제회의 복합지구에서는 지구와 시설이 지역적으로 연동되도록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 지구 내에서만 시설이 지정되도록 하고 있다.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지구와 시설이 지정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클러스터 지정 사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구와 시설은 지역적 연계 없이 별도로 지정된다.

복합지구는 특구 성격의 지구이면서도 부담금 감면, 용적률 완화 등 토지이용 관련 혜택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Complex 성격의 복합단지와는 달리 Custer 성격의 복합지구에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지 않고 토지이용 관련 혜택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지구를 관광특구로 간주하도록 하여 관광특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한편으로 지정요건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넓은 범위에서 시행령에 위임하여 법안 시행이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절차, 공고의 방법 등은 상세하면서도 현대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조문을 구성하고 있다.

복합지구 지정요건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복합화를 촉진시키려는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전문회의시설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지구 지정의 필요성, 복합화를 위한 기본수요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외국인 참가자 규모와 관련된 조문이 설정되어 있다. 클러스터 지정은 아무 것도 없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도 컨벤션센터의 외국인 참가자수가 1만 명이 넘고 있어서 5천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구 지정 필요성은 궁극적으로는 시설 유치를 통해 유치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지구내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지구에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편의시설 관련 조문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는 국제회의도시 지정요건의 하나이기도 하다.

지구의 집적화를 위해서는 지구면적을 어느 정도 좁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관광특구, 개발촉진지구 등은 지정 면적이 과대하여 지구지정의 효과가 미미해지고 시설이 분산되는 전례가 있다. 복합지구의 지정면적은 컨벤션센터에서 도보 30분 이내(2km)의 거리에 숙박, 쇼핑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

는 판단아래 면적개념으로 환산하여 결정된 것이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에서 제시하는 공간 개념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지구의 육성·진흥계획

시행령 제13조의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이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목적
 3. 국제회의시설 설치 및 개선 계획
 4.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조성 계획
 5. 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확충 계획
 6.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조성·개발 계획
 7.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
 8. 관할 지역 내의 국제회의업 및 전시사업자 육성 계획
 9. 그 밖에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수립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구에는 해당 시·군에서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제회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담기도록 하고 있다. 집적시설의 유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국제회의관련 기반시설, 편의시설, 관광거리의 설치·조성 계획 등 복합지구의 육성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복합지구내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 국제회의기획업, 전시사업자 등 사업자 육성 계획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육성·진흥계획에 대해서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5년마다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다. 관광특구진흥계획과 동일하게 5년 주기로 평가, 검토하도록 조문을 설정한 취지가 있다.

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은 지정 타당성, 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등과 관련하여 다소 까다롭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국제회의의 참가자 규모, 지역의 투자 유치 효과 등을 감안할 때는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어야 국제회의의 참가자의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 투자유치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숙박시설, 판매시설은 기본적으로는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해 범위가 설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숙박시설은 외국인 참가자의 이용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 한정하면 서도 일반호텔, 레지던스, 여관 등의 관광숙박업 등록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관광숙박시설 중 객실수 100실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참가자들이 대부분 특급호텔에 숙박한다는 사실과 외국인 참가자의 동시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말 기준 관광호텔의 평균객실수가 107.3실인데 평균 수준에서 기준을 설정한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 관광호텔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00실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판매시설은 숙박시설과 같은 맥락에서 대규모 시설로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공연장은 중·대규모의 공연장을 객석규모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집적시설 지정요건

집적시설은 법에서도 복합지구 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고, 집적시설이 복합지구 내에 조성되어야 복합지구의 지정목적 달성할 수 있으므로 지구내 소재하도록 조문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각 집적시설이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관련 조문을 두고 있다. 집적시설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공공성 시설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제휴 프로그램, MOU 등 업무제휴 협약 내용은 집적시설이 컨벤션센터와의 연계 속에서 지원의 의미가 있고, 컨벤션센터와 집적시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시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업무협조, 가격할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이러한 취지로 각 지역의 MICE Alliance가 조직되어 있고, 가격 할인 등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집적시설은 기존시 설립 수도 있고 예정 시설일 수도 있다. 기존 시설로만 한정할 경우에는 부담금, 용적률 적용의 혜택이 반감된다. 다만 예정시설일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계획상으로만 확인 가능하므로 사후적으로 시설 완공이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조항은 이를 고려한 것이다.

향후 기대

위와 같은 입법 기반위에 향후에는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등 정형화된 형태의 세제 감면이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제도적 지원이 완성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규제관련 특례를 발굴하여 혜택의 폭을 풍부하게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관광특구와 연계된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많은 지역에서 관광특구와 복합지구가 선택적으로 활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회의 여건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최적화된 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구성

MPI World Education Congress 참관기

MPI World Education Congress는 북미지역의 최대 규모의 Planner/Supplier 협회인 MPI가 주최하는 Meeting Planner에 최적화된 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이다. 미국 지역 chapter 별 자체적인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참가자가 중심이 되어 기획되는 부분은 국내 참가자가 벤치마킹 하기 매우 좋은 부분이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지역의 유니크메뉴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부분 또한 MPI WEC의 큰 매력으로 참가자들에게 평가되고 있다.

Meeting Planner로서 알아야 할 최신 기술과 트렌드, 법적 문제까지 실무적으로 유용한 내용들로 구성된 자유로운 형식의 강연이 행사 기간인 4일 동안 10개 이상의 Session으로 곳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또한 참가자들의 자율성이 높아 만족도 및 비즈니스 성과가 매우 높은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세션으로는 ‘Green & IT’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교육이다.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적 컨벤션 주최의 흐름에 맞게 녹색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에서부터, 친환경적 IT 기기들과 기술들이 소개되어 실제 국제회의를 기획할 때 실현할만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

또한 ‘The Big Deal’ 과 ‘Market Square’과 같이 열린 장소에서 연사와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단순한 네트워킹에서 더 나아가 업무적인 아이디어와 팁을 얻을 수 있는 세션들이 MPI WEC만의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Chapter의 활동이 미흡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MICE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명실상부 매년 꼭 참석하고 싶은 해외 박람회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진행 체계적 교육과정 인상적”



이번 행사는 컨벤션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다시금 느끼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소셜 이벤트가 활성화된 국가답게, 항구의 창고 건물을 활용하여 서커스 테마를 적용한 사전 리셉션 운영이 흥미로웠으며,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부대행사로 마련한 점들이 유익하였다. 또한 불필요한 의전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프로그램 진행과, 나이, 경력을 넘어서 진행되었던 참가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은 어느새 절차와 정해진 의전에 맞추어 틀에 박힌 행사 운영을 하고 있던 나에게 고정관념을 깨게 하는 반성의 시간이 되었다.

특히 컨벤션 행사 중 의학 회의 시장이 큰 만큼 의학, 제약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데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연계 대학에서 HMCC (Healthcare Meeting Compliance Certificate)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의학 관련 미팅 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별 제약, 의학회의 개최 관련 규정 등을 빠르게 습득하고 전문화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표준화된 교육과 관련 전문가의 양성이 업계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행사의 마무리인 폐회식은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시청사를 참가자에 개방한 것과 청사 내에서 구성된 리셉션 공연, 식음료 제공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시의 지원과 지역 관련업체와의 협력이 돋보인 행사였다. 우리도 지역 업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자사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의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MPI의 WEC총회는 최신 트렌드를 익히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각 지역 MICE 관련업체 실무자들에게도 새로운 정보를 얻고 다른 시각으로 행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참가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송이 · 부산관광공사 과장

“주최도시와 기업과의 협력 간접적 체험 기회 풍성”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다. 협회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항공료와 숙박료가 나를 괴롭혔다.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처음 참석하는 Education Congress였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어플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속 쏟아져오는 Invitation Mail에는 어떻게 응대해야하는지-하물며 그 초대 행사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의문투성이였다.

태어나서 처음 밟아보는 미국 본토땅, 샌프란시스코는 기후, 교통, 관광프로그램 등 과연 세계 1등 관광도시 중 하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행사 2일 전에 도착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체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라고 느꼈던 점들이 많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8월 1일 드디어 행사 첫날. 앱으로 미리 예약했던 세션을 들으러 Session Room으로 들어서서는 순간 잠시 멍찔했다. 테이블과 의자의 셋팅과 레이아웃 때문이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Session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과 더 많은 교감을 하기위하여 고안한 특별한 방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MPI행사는 다양한 Session들과 Networking 모임, Reception Party, Theme Party, Keynote Presentation,(각 행사 이름 넣기) 등의 프로그램들은 행사의 규모, 아이디어, 구성력, 연출력으로 놀라게 만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참가자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자신있게 이야기 하고 싶다.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쯤 참석하신다면 후회하시지 않을 것을. 사실 MPI는 CMP, CMM 등 많이 들어본 적

없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더 환영받는 미국 중심의 Education Congress이다. 혹자는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어서 가도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특히 플래너나 CVB나 각 지역 관광공사에 계신 분들이 가게 된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문화나 시스템이 다소 우리나라와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이런 대규모의 행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그리고 행사를 주최하는 도시나 지역이 기업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후원을 받게 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선진화된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MPI Korea Chapter가 있다. 여러가지 상황상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서 MPI에 갔을 때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Chapter와 Membership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하고 HQ에 메일을 보내서 Communication 하고 있는 중이다. MPI를 다녀 오고 나서 생긴 목표중에 하나는 MPI를 한국에서 한번 개최해보는 것이다. 물론 미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MPI Asia Chapter들만의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개최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Asia Chapter들 만의 행사를 하게 된다면 보다 더 좋은 교육 내용과 더 좋은 기회의 Networking의 장으로 될거라 생각한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개최하는 도시나 지역에는 그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강유규 · 원플러스원 과장





경희 MICE 창조아카데미

KyungHee MICE Creative Academy

경희 MICE 창조아카데미에서는 미래 사회를 선도할
컨벤션·전시·이벤트 인재를 육성하고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컨벤션·전시·이벤트에 관심이 있다면, 취업과 자기개발의 꿈을 펼치고 싶다면,
컨벤션·전시·이벤트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경희 MICE 창조아카데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취업연계

- **공동 프로그램**
 - 서울형 경희 컨벤션전시이벤트 아카데미 1기 (15년 10월)/2기 (16년 1월)
 - 서울형 경희 컨벤션전시이벤트 기획력 트레이닝 1기 (16년 3월)
- **컨벤션**: 컨벤션 분야 창조인력양성 아카데미 (15년 12월)
- **전 시**: 전시회 분야 창조인력양성 아카데미 (16년 3월)
- **이벤트**: 이벤트 분야 창조인력양성 아카데미 (15년 9월)

재직자

- **공동 프로그램**
 - 컨벤션전시이벤트 Pre-MBA 및 전문강사교육 1기 (16년 2월)
- **컨벤션**: 내 행사에 맞는 빅데이터분석, SNS활용, 인포그래픽, 홍보 스킬up 1기 (16년 1월)
- **전 시**: 서울형 전시 전략 마케팅 세미나 (15년 12월)
- **이벤트**: 창의적 이벤트 기획과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1기 (16년 2월)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MICE전문인력양성교육 'Re-start with MICE, 인니가 간다' 1기 (16년 1월)

참여대상

- **취업연계 프로그램**: 대학 졸업예정자(2년제/4년제)·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
- **재직자 프로그램**: 컨벤션전시이벤트 분야에 관심 있으신 재직자 분 누구나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www.khumiceacademy.com)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후 수강신청

특 전

수료증 수여, 취업 지원 등 철저한 사후관리, 이력서 특강, 모의면접 제공,
현업 연계 네트워크 구축, 강의 전액 무료 (출석률 80%미만시 관련교육제한)

문의처

- 전 화 : 02-961-9274 • 홈페이지 : www.khumiceacademy.com
- 팩 스 : 02-961-9274 • 이 메 일 : khumiceacademy@khu.ac.kr
- 카 페 : <http://cafe.naver.com/khum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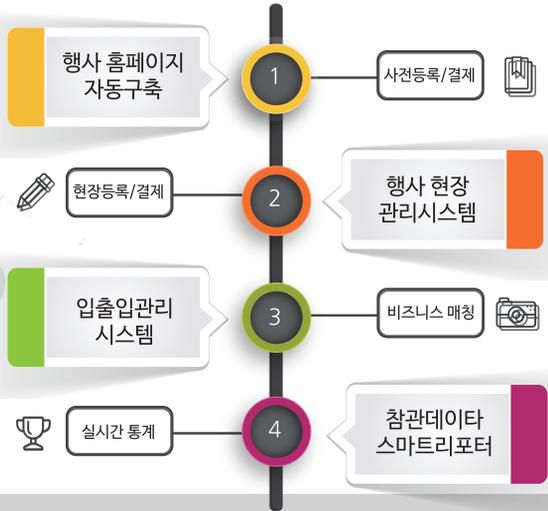
전형일정

교육과정	이벤트 분야 창조인력양성 아카데미	서울형 경희 컨벤션전시이벤트 아카데미 1기
수강기간	2015. 09. 18.(금) ~ 2016. 01. 08.(금)	2015. 10. 01.(목) ~ 2015. 12. 04.(금)
수업일시	금(19:00 ~ 22:00)	목, 금(19:00 ~ 22:00)
모집대상	대학 졸업예정자(2년제/4년제)·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	
서류접수기간	2015. 09. 01.(화) ~ 2015. 09. 10.(목)	2015. 09. 01.(화) ~ 2015. 09. 16.(수)
서류마감	2015. 09. 10.(목)	2015. 09. 16.(수)
서류합격자발표	2015. 09. 11.(금)	2015. 09. 17.(목)
면접일정	2015. 09. 12.(토)	2015. 09. 19.(토)
합격자 발표	2015. 09. 14.(월)	2015. 09. 21.(월)
O.T	2015. 09. 18.(금)	2015. 10. 01.(목)
수료식	2016. 01. 08.(금)	2015. 12. 04.(금)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MICE+NICE

MICE 행사를 위한 원스탑 MICE지원 솔루션



1. MICE-NICE 솔루션의 필요성

- MICE 홈페이지**
기간 : 15~30일 소요
비용 : 500~2,000만원 소요
- OFFLine 현장등록관리**
별도관리 및 최소500만 소요

MICE행사 특성상 저비용, 단기간내 홈페이지 구축 필요
Online-offline 데이터 통합 반드시 필요
행사 참관객 수 실시간 확인 및 통계 기능 필요



2. MICE-NICE 솔루션 주요특징

<p>홈페이지 자동구축 3일에 완성하는 행사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지원</p>	<p>PSA시스템 지원 최적의 비즈니스 미팅 관리 셀러/바이어 셀프 매칭</p>	<p>네임텍 발급/확인 다양한 디자인네임텍 발급 QR코드로 사전등록/결제 확인</p>	<p>현장관리 최적화 사전등록 현장등록 DB연동 오프라인 결제</p>
<p>손쉬운 사이트관리 CMS관리자모드 기본지원 자유도 높은 등록폼</p>	<p>사전등록/사전결제 회원이입없는 사전등록 다양한 온라인결제들 지원</p>	<p>실시간 통계지원 행사참가자 실시간 확인 실시간 매출 확인</p>	<p>출입관리 기능 지원 PC캠을 통한 출입권한 확인 네임텍/ID밴드 인식</p>

3. MICE-NICE 솔루션 적용사례



이제 MICE-NICE로
나이스하게 마이스를 즐기세요~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산업이 모인 곳이 바로 MICE산업이다. 국내외 다양한 산업군 사람들이 한 곳에서 만나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MICE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언어다. 다양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통·번역 회사에서 시작해 최근 PCO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이 회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인천의 대표 통·번역 회사에서 PCO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ICGLOBAL을 만났다.

ICGLOBAL은 지난 2005년 설립된 이래 시청, 구청, 상공회의소, 진흥원 등 공공기관 지정등록업체이자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 공급자 계약체결을 하는 등 10여 년 지속적 성장을 거쳐, 현재는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통·번역 전문회사로 성장했다. 처음에는 사업영역이 번역에 한정됐으나 자연스럽게 통역 등 언어를 이용한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했다.

이 같은 확장 과정에서 ICGLOBAL은 MICE산업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왔다. 지역 내에서 진행 되는 컨퍼

런스와 세미나 등 MICE현장을 함께한 것이다. 남경선 ICGLOBAL 대표는 “번역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자연스럽게 통역, MICE산업으로 비즈니스 영역이 넓어졌다”며 “MICE산업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관심 확대는 물론 우리 회사와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흔히들 MICE산업을 종합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산업,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간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을 진행하죠. 그 중심에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회사와 MICE산업과 만남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꾸준한 만남은 ICGLOBAL의 역량을 높이는 좋은 교육기회가 됐다. MICE행사 내 번역, 통역 업무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며 산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 참여하면서 키워왔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지난해 있었다. 인천녹색기후포럼(IGCF)이 그 주인공이다. 녹색기후기금(GCF)



“남 따라 욕심내기 보다
전문가 되는 길 갈 것”

남경선 ICGLOBAL 대표

인천시대를 맞아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포럼이다.

남 대표는 ICGCF 포럼 위원으로 직접 참가함과 동시에 행사를 기획·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남 대표는 “300여 명이 넘는 참가 인원, 이들 중 200여 명의 창립위원을 위촉하는 등 ICGCF의 향후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행사를 진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참가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인천에 자리한 GCF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국제적 행사라 책임감이 컸습니다. 행사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요 등을 파악하지 못했던 점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역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그간 회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며 키웠던 MICE산업 역량을 종합적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향후 더욱 나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해 성공적 행사에 힘입어 ICGCF 사단법인이 창설됐다. 또 오는 10월 말에는 2015년 ICGCF포럼이 개최된다. 지역에 위치한 국제기구, 여기에 발맞춘 특화 포럼 등을 개최하면서 지역 MICE산업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자부심이 생긴다는 남 대표의 소회가 이어졌다.

언어와 MICE란 전문성을 키우는 ICGLOBAL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남 대표는 자신의 전공분야인 IT기술과 언어 그리고 MICE산업의 시너지를 통해 시스템을 갖춘 MICE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남 대표는 MICE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설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현재 대학원에서 MIS(경영정보학)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 같은 이론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더 나은 MICE산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남 대표는 확신했다.

“일은 반복적, 정형적으로 이뤄지는 일과 비정형적, 비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있습니다. 타 산업에서 반복적인 일은 다양한 IT기술 발전과 함께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MICE산업 역시 시스



템에 기반한 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CGLOBAL의 목표를 묻자 남 대표는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자’는 경영철학을 소개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MICE산업에서 ICGLOBAL 뿐만 아니라 인천MICE산업 성공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영역에 발을 디뎠으나, 무조건 남을 따라 가진 않을 것입니다. 남들을 보며 욕심내기 보다는 제대로 기여하는 전문가가 되는 길로 가겠습니다. 성급한 욕심 대신 인내의 욕심을 갖고 꾸준히 저희 역량을 길러 진정한 MICE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글·사진 박기범



“스토리텔링 기획에 집중, 지역 플랫폼 역할 기대”

사회의 첫 발은 방송작가였다. 과학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며 과학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왔다. MICE와의 만남도 과학이 계기가 됐다. 정해영 대표이사의 피알존은 이제 중부권에서 내로라하는 과학분야 전문 MICE업체로 거듭났다.

“처음엔 과학동아와 같은 과학전문 책을 출간하면서 과학전문 작가로 활동했죠. MICE와 인연이 닿아서 피알존을 창립한 것이 벌써 15년 전이네요. 피알존은 스토리텔링 기반 과학분야 특별전시회를 기획하는 일을 하며 첫 발을 뒀습니다.”

피알존은 사명에 피알(PR)이 들어가는 만큼 행사를 둘러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방송기술 노하우와 MICE기획 서비스가 더해져 종합 MICE·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정 대표는 “행사, 홍보, 방송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PR”이라며 “그간의 노하우가 풍성한 MICE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피알존에서 진행한 방송·영상분야 사업은 일반적 홍보영상부터 인터넷 방송, 교육콘텐츠 등 진행, 해외에선 중국학생들을 대상한 영어교육콘텐츠까지 망라한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홍보관 전체 콘텐츠도 피알존에서 전담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곳에서 진행되는 행사까지 피알존의 영역권이다.

피알존의 MICE사업 특징점은 전시에서 드러난다. 정

정해영 피알존 대표이사



대표에 의하면 피알존은 과학 관련 전시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해 왔다. 정 대표는 “전시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엇보다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피알존에서 진행하는 전시회들은 무조건 개최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방안 기획에 집중하죠. 실제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전시들도 다수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지난해 진행했던 인공위성특별전과 해양과학특별전이 있습니다. 다음달엔 주택도시특별전도 개최하게 됩니다.”

MICE를 생방송 같이 여기는 점도 피알존과 정 대표

의 특징이다. 정 대표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잠깐의 실수들이 행사를 망친다”며 “그 모든 것들은 생방송처럼 긴장하고 준비하는 습관은 피알존만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피알존을 거쳐가는 과학관련 행사는 연평균 30~40건에 달한다. 15년동안 치러낸 행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 행사는 대전세계조리사대회대전지역 유일한 컨소시엄업체로서 참여했다”며 “가장 많은 조리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행사”라고 설명했다.

과학도시에서 과학분야 MICE를 전문적으로 개최하는 업체에게 큰 걸림돌은 없어보였다. 그러나 정 대표는 “피알존 역시 지역업체가 가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전이 MICE도시 브랜드를 선포했죠. 하지만 전 대전이 아직 MICE도시가 되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 차원에서 MICE행사를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도 창출하고 있죠. 문제는 지역산업엔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정책이 지역업체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지역업체들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정 대표가 말한 지원은 상권보호다. 수도권 소재 거대한 업체들이 지역까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은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잃는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입찰 시 지역업체와 일부 서비스를 협력해야한다는 법적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업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이같은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해영 대표가 기대하는 피알존의 미래상은 지역업체의 플랫폼이다. 중부권에서 뼈대 굵은 업체로서 좋은 인력을 배출하고 MICE 새내기들이 업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업을 꿈꾼다는 것. 정 대표는 “지역의 15년차 선배로서 부끄럽지 않은 기업이자 지역업체의 롤모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글 강수정

타 PCO와 차별화된 독창적인 지식자산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는 비결이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화제인(話製人)이라는 회사명도, 대표이사의 이력도 독특해 업계 내에서 늘 주목받는 회사가 있다. 올해 탄생 7주년을 맞이한 (주)화제인의 조미호 대표에게 회사명에 대해 첫 질문을 던졌다. “PCO는 대행업무가 상당부분인데, 거기에서 그치고 싶지 않았어요. 대행도 완벽히 잘 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창의적인 행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획력이 강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Design Your Story’라는 모토를 잡았죠. 그런데, PCO 업계 회사명은 영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CI 작업을 했을 때 시각적으로 신선함을 줄 수 있는 한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야기=話, 만들다=製, 사람=人)”

조 대표는 방송사 PD로 18년간 직장생활을 했었다. 일본에서 대학 졸업 후 현지기업에서 3년 간 경력을 쌓고, mbn(매일경제TV)에 입사해 매일경제신문 세계지식포럼(2015년, 16회 개최)에서 1회부터 4회까지 총괄PD로서 포럼을 정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2004년 SBS 보도국으로 스카웃된 후 서울디지털포럼(2015년, 12회 개최)에서도 1회부터 5회까지 5년간 책임PD로 활동했다. 국제회의 전문가들이 손꼽는 MICE업계의 대표적인 국제회의, 세계지식포럼과 서울디지털포럼.

조 대표는 그 두 프로젝트의 커리어를 다 보유했다. 그래서인지, 국제회의를 새로 런칭하는 정부나 기관에서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한다. 화제인이 런칭에 참여한 대표적인 국제회의는 골드에이지포럼(아시아경제)·은퇴전략포럼(뉴스토마토)·코리아모바일페스티벌(미래창조과학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포럼(미래창조과학부) 외 다수.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인정받은 행사는 어떤 것이 있냐는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때 전자신문 주최로 그린오션포럼을 개최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비전을 행사에 녹여내고 싶었어요. 창업 때부터 함께 해온 직원(현 이상훈 부장)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방이 뚫린 360° 회전 가능한 중앙 오픈 무대를 기획해서 폐기물 발생·전력 소비를 최소화해 에너지 관련 업계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힘든 점도 많았는데, 결국 해냈을 때 성취감과 보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화제인에는 PCO업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사업 분야가 존재한다. 캠페인 컨설팅인데, 대한민국 PCO를 전부 통틀어도 화제인만이 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한다. 조 대표는 국내에서 전문한 국제회의전문가라는 독특한 커리어를 쌓았음과 동시에 매일경제신문의 비

조미호 화제인 대표이사

전코리아, SBS의 미래한국리포트 라는 국가어젠다 캠페인 책임PD로도 활동을 했다. 20년 가까이 몸으로 익힌 그 경험을 사업모델로 접목시킨 것이다. 기관이나 대학교, 기업의 창립 20주년, 100주년 등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을 맞이했을 때 캠페인을 기획하고 컨설팅 하는 것이다.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조직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데, 단순한 기념식 행사 제안만으로는 다른 경쟁 업체와 차별화를 둘 수가 없잖아요? 캠페인 컨설팅이 성공을 하면 발주처는 내부 조직인의 결집으로 상상 그 이상의 힘이 생겨납니다. 직원에게 변화가 생기면, 조직의 발전은 비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없던 애사심이 생겨났는데, 시키지 않아도 일을 열심히 하고, 서로 헐뜯지 않고 의지하고 아끼면서 일을 하면 저절로 성과가 오르고 발전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PCO인데 사업분야가 참 독특하다는 말에 “20년 가까이 방송PD를 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에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자산이 수익모델로 성과를 낸 것이 저희 회사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인정받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며 조 대표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회사 내에서 직접 진행하는 영상제작도 다른 PCO와의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PCO들은 코스

트 증가로 외주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화제인은 저의 방송PD 경험을 살려 내부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어 주최측이 원하는 영상을 단시간에 빠르게, 좋은 품질로 제작해 드리니까 고객들이 좋아하세요.”

최신 트렌드로 자리 잡은 토크콘서트 기획도 화제인의 주특기로 꼽힌다. 토크콘서트가 유행하지 않았던 7년 전부터 대학교, 기관 등에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여러 장르의 행사를 토크콘서트로 기획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호평 받고 있다.

화제인에 어울리는 인재상을 묻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된 인재’가 답변이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 하면서 살면 인생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요?”라며 직원들 자랑도 놓치지 않았다.

화제인은 지난 7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매출은 신장 해왔고, 적자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한다. 또박또박 정도를 걸어온 느낌이다. ‘창립 10주년 때 화제인은 어떤 기업이 되어있을까’라는 질문에 “얼마 전 폭스바겐이 한 행동을 보면, 내실없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예요. 저는 ‘건강한 기업’ 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정직하게 성장하면서 내실을 다진 ‘건강한 기업’,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





“연결고리 역할,
렌탈·장비업체에
새로운 인식 필요”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MICE산업. 그 곳에선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지식과 변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공간을 보다 나은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바로 ‘렌탈’이며, 시스템으로 MICE환경과 그 순간을 연출하는 건설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18년째 렌탈은행을 운영해 온 최두성 대표는 MICE산업의 본격적인 태동기와 함께 해왔다. 컨벤션 산업이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할 때 우연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렌탈쇼를 가게 됐고, 국내 렌탈시장이 블루오션사업으로 판단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미국의 경우 ARA(American Rental Association)의 협회 직원만 60여 명이나 됩니다. 이주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이다 보니, 우리나라로 치면 고속도로 휴게

소와 같은 매장에만 렌탈업체가 적게는 2~3개 많게는 4~5개나 포진되어 있지요. 그곳에서 TV, 소파, 가구, 노트북, 오디오등을 다 빌려주며 설치, 유지보수까지 해줍니다.”

맨 처음 렌탈은행을 시작할 때, MICE업계에서 유일한 한국MICE의 제너럴 서비스 컨트랙터를 꿈꿨고, 그 당시 특별하게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국은 시내 중심가가 아닌 외곽에 렌탈매장이 위치해 있었지만 저는 시내 한복판에 시중은행들의 개념을 도입한 사업구상을 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 있듯이, 한편엔 물자를 빌리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죠. 언제까지 ‘물건을 사기위해 돈을 빌릴 것인가?’가 제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장비를 도입하고 창고를 두고 은행처럼 전문화하기 시작했죠.”

설립한지 2년 만에 ASEM정상회의장에 필요한 장비 장치 인프라를 구축해냈고, 그 이후 한·일 월드컵 축구

최두성 렌탈은행 대표

대회, APEC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등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 올해 9월엔 동시에 14여 개 이상의 행사를 한꺼번에 소화하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사업초기 전시컨벤션 행사장을 처음 방문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텅 빈 컨벤션 전시장을 본 후 다음날 같은 자리에 다시 가봤어요. 그 빈 공간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뀌었어요. 비었던 공간에 영상·음향·조명·무대장치, 등록, 통역, 인력, 회의시스템과 각종 환경장식으로 채워지고, 그 공간에서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데 매료됐죠. 그 공간을 제 손으로 직접 건축가처럼 꾸민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최대표가 회사를 설립할 당시, 과감하게 렌탈업을 시도한 경쟁업체들도 선두주자도 별로 없었던 만큼 책임감도 크고 중압감도 컸다. 더구나 렌탈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터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렌탈 테크놀로지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도 없어 유에서 무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업종분류 표준화도 안된 상태에서 공부를 많이 했죠. 미국에 전시회, 콩그레스가 있으면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고 MPI, PCMA는 꼭 참석하면서 흐름을 읽도록 노력했습니다. 저 뿐 아니라 직원들도 꼭 해외파견을 보내 얻은 지식들을 공유하죠.”

그는 여전히 각종 포럼·이벤트 행사 뿐 아니라 다양한 MICE 관련된 직접 체험을 꾸준히 해나가며 획기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다. 렌탈은행은 현재 서울본사, 경주지사, 그리고 성남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장비·자체기술·자체인력의 맨파워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MICE 플레이를 펼쳐가고 있다.

“사실 모든 MICE행동의 절반 이상이 렌탈이기 때문에 빌려쓰는 것만 잘 해도 그 행사는 성공이죠. 그래서 렌탈 사업을 하면 MICE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셈이죠.”

“‘특허방’이라는 직원들 단톡방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실시간으로 공유시켜 발전시키도록 노력합니다. 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저희 회사의 또 다른 성장동력입니다.”

‘크리에이티브와 아이덴티티가 살아 숨쉬도록 행동한다’는 건 렌탈은행의 슬로건이며, 이를 실행하는 RB포럼과 히든챔피언데이 자체행사를 통해 작지만 알찬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이미 전 세계는 렌탈없는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서 한국 MICE산업의 프로바이더 업종들도 자긍심과 가치관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하루빨리 업종통합 명칭도 PMS(Professional MICE Supplier Service)로 MICE사회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MICE에 관련된 유사 협회·단체를 모든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통합되어야 한국 MICE가 산다는 의견을 강하게 던집니다. MICE는 메뚜기처럼 한철이 확실하지만 언제까지 메뚜기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여행을 지향합니다**

‘여행업계의 인식을 탈바꿈하는 기업. 화인투어입니다’ 이순주 화인투어 대표이사가 자신있게 꺼낸 첫 마디였다. 일상에서 벗어난 행복을 꿈꾸며 여행길에 나서지만, 막상 의무적인 쇼핑센터 투어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현실인 여행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화인투어는 얼마전까지는 ‘마이스투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일반인들도 G20 정상회담 등으로 MICE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던 2009년, MICE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순주 대표가 직접 불힌 이름이다. “MICE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다보니 일반 고객들이 인식하기에 회사명이 어려워 고심끝에 ‘화인투어’로 사명을 바꿨다”며 이 대표는 “‘FINE’의 음차이자 ‘화이팅’과 비슷한 발음이라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지만, 아직도 ‘마이스투어’로 검색하고 회사로 연락오는 경우도 있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며 웃었다.

화인투어는 올해로 창업 9년차의 기업이다.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B2C 전문 대형 여행사들도 많기 때문에, 저만의 특화된 영역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에서 기업상용·인센티브 여행을 목표로 창업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행안내 책자를 읽는 듯한 획일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그 지역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여행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기획하려 한 사람은 많았겠지만, 실천에 옮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코스 구성, 가이드 확보, 한정된 수요층)가 있어 시도되지 않았다. 다행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처럼 일단 시작하니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을 담은 6박 8일 이탈리아 투어가 지난달 진행됐다. 300여명의 오페라가수들이 육성으로 공연한 베로나 야외극장 관람, 큐레이터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의 설명이 동반된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견학, 피렌체 인

이순주 화인투어 대표이사

근 몬테펠치아노의 와이너리 투어 등을 마치고 고객들이 기존의 여행과 다른 여행상품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순주 대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피사체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양 팔의 길이를 다르게 그렸다는 설명, 다른 여행상품에서도 들을 수 있을까요?”라고 자부심있게 말했다.

화인투어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고객 니즈에 맞는 여행상품을 기획한다는 점이다. 인문·예술 비전공자인 이 대표는 자신의 목소리를 줄이고, 고객들의 말을 들으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상품을 기획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객이 여행중 불편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회사 경영이념인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 까지 한다’라는 열정을 가진 인재와 같이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이순주 대표는 말했다.

MICE산업 내에서 여행업의 위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행사 업체 선정시 최저가 입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말했다. “행사 품격을 위해 좋은 식사·편안한 교통수단·안락한 숙박을 넣으면 높은 금액탓에 입찰에서 떨어지게 된다”며 “당장 행사를 수주받기위해 서비스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면 결국 우리나라 MICE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관광과 한국관광의 차이점을 몇 해 전 기사자료를 놓고 설명했다.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관광지로 구성된 한국 여행사의 상품가격은 일본 여행사의 상품가격보다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경비를 정산하면 오히려 일본 여행사 상품보다 한국 여행사 상품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을 알게됩니다.”

인식의 차이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여지는 저렴한 요금을 더 선호한다. 현지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여행경비를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좀 안타까운 현실에 이제는 여행에 대한 인식을 변화 시켜



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희 화인투어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여행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

글·사진 박태진

제주의 전시산업 육성과 제주컨벤션뷰로

조진훈
제주컨벤션뷰로 마케팅팀장



MICE산업에서 ‘E’에 해당되는 전시산업(Exhibition)은 상품거래, 수출진흥, 연관산업 성장, 관광 등에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지식산업으로 각국 및 도시별로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를 서울, 부산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 MICE도시라 자부하는 것이 무색하게 지리적인 특성, 도시규모, 산업기반 미미 등의 이유로 MICE산업의 한축인 전시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다.

2000년 이후 국내 전시회 개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도 132건에서 2014년 697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3년에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반면 2014년에는 전년대비 22% 증가를 보이는 등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제주를 2011년까지 개최된 전시회가 한 건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과 관련기술 등을 보유 및 활용할 수 있는 전시 사업자 역시 전무한 실정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전시산업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2009년~2014년까지 실시한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로하스박람회’, ‘국제마(馬)산업엑스포’,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와 같이 제주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전시회가 기획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주지역 MICE 산업관련 학계, 산업체, 행정기관에서는 전시산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교류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비로소 전시산업에 대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다른 MICE 도시와 비교할 바는 못되지만 최근 3년동안 전시회 개최건수는 증가(4건 → 7건 → 12건)하였고, 3건의 전시회가 국내인증을 받는 실적도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제주에서도 전시회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2014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이 일몰된 이후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계획이 발표되었고 제주를 강원과 함께 경제권으로 분류되어 유망산업으로 전시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주컨벤션뷰로는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밀착형 전시산업 생태계 육성지원’의 주관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간 37억3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지역의 MICE산업을 이끄는 선도조직으로서 제주의 전시산업을 육성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3년 동안 제주와 강원 지역의 유망 및 신규전시회 직접 지원은 물론, 전시전문가 양성교

육, 전시회 발전 및 국제인증을 위한 컨설팅, 전시장치 및 서비스 개발지원, 관련 컨퍼런스 기획 및 지원, 유관 관광상품 개발지원 등 말 그대로 제주의 전시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최근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중 유망 전시회 2건, 향후 지역특화 전시회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규 전시회 2건을 선정하였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 선정 공모를 진행하는 동안 제주에서 PCO 또는 이벤트 기획을 주업종으로 해오던 MICE 사업체들이 전시회 기획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부는 전시사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주도청 역시 전시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시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인 전시장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비사업과는 별도로 전시회 육성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컨벤션부료와 긴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향후 3년 동안 국비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시회가 육성되고 이 전시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MICE 지역업체가 성장하여 제주형 전시산업 생태계가 육성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 그리고 제주컨벤션부료도 지역밀착형 전시산업 생태계 육성지원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그리고 3년후 그 역할이 종료되더라도 지역 MICE산업의 중심기구로서 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와 정책건의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컨벤션부료는 지역의 MICE 산업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국제회의 또는 인센티브 투어 유치에 제한되었던 역할이 지역 MICE Alliance 구성 및 운영, MICE 서포터즈 운영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컨벤션을 발굴·육성하고 유치된 국제회의나 인센티브 투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비활동을 촉진 시키는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시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컨벤션부료의 역할이 아직도 매우 미미하다. 지역의 전시산업은 지방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육성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컨벤션부료는 전시회 참가자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관광 활성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진정한 MICE 산업의 중심조직으로서 지역의 컨벤션부료가 'E'에 해당하는 전시산업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시산업의 환경변화를 기대해 본다. ✨

NCS를 통한 MICE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 교수



최근 다양한 광고 채널에서 NCS 및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광고가 들려온다.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의미하고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NCS 사업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MICE 산업은 (사)한국MICE협회를 중심으로 “컨벤션기획”분과로 2013년도부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직업교육훈련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중시하였다면,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교육계에 있어서는 큰 변화로 현재 정부에서는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부 지원금 제도 등에 제약을 두어 NCS 기반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NCS 기반 제도로 변화하면서 우리 산업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NCS 도입에 따라 교육의 목표가 NCS에 기술된 능력단위별 수행준거를 달성하여야 하는데, 컨벤션기획의 경우 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기획의 3부분으로 세분화하여 요구되는 직무와 역량에 대한 내용을 이미 수립하였다. 2013년도 당시 각 분야별 10명 이상의 집필진이 참가하여 회의, 전시, 이벤트에 대한 정의부터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상세히 구분하여 서술하였고 여러 번에 걸쳐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NCS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내용과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개발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수록한 교과 매뉴얼을 기존 NCS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하는 시간과 학점 등을 고려하여 NCS에서 설계된 일부 능력단위를 서로 결합하거나 분해하여 매뉴얼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도 기존 NCS 집필진과 신규 전문가가 포함되어 기존에 없던 우리 업무에 적합한 새로운 교재를 집필하여 현재 회의, 전시, 이벤트 각 분야별로 10권 이상의 교재가 준비되었다. 이후 진행된 과정은 실제 학생들과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역할 및 신규 제도에 관한 부분으로 기존의 자격증 외의 새로운 과정형 평가자격제도가 마련되었다.

과정형 평가자격제도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원하는 직무에 맞는 내용을 훈련(교육)을 받으며 취득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자격증 제도와는 개념적으로 다른 제도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검정 기관에 등록하여

특정일에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받는 제도(검정형)가 아니라 본인이 특정 직무에 관심이 있으면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여 자격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하는 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 받는 것(과정형)이다.

이러한 과정이 실행되기 위해서 이미 지난 8월에 컨벤션기획 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이 가능한 교육·훈련기관을 모집하고 선발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는 기존의 자격증과 동일한 형태의 자격증을 받지만 과정형 국가기술자격증 내용에 교육훈련기관명과 이수한 과목리스트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자격증을 받음으로써 기업입장에서는 검정형 자격증보다 면밀하게 입사지원자의 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NCS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단점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컨벤션기획 분야 주요 직무능력단위를 개발하면서 과연 이렇게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 전 산업분야의 직무를 표준화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지와 교육기관별로 설립 목적과 운영방향이 있는데 이를 국가 지원금제도를 이용하여 무조건 따르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우리 업계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냈을 때 우리 업계에 여기서 배출된 인력을 수용할 만한 직업이 얼마나 되며 또한 이런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업계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될 지이다. 특강으로 몇 시간 강의가 아니라 몇 백 시간씩 가르쳐야 하는 과목들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걱정되기는 한다

반면에 현재 우리 MICE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간관리급 인력 부족과 우수인력 유입의 어려움, 학생들의 관심 저조,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의 유명무실 등의 측면에서는 NCS가 새로운 돌파구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NCS 작업에 참여하며 이룬 몇 가지 성과는 첫째, 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기획 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직무 중심으로 하여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둘째, 표준화된 세 분야에 적합한 업무 중심의 교재를 제작하였다. 셋째, 기존의 컨벤션기획사 자격증과 별개로 과정형 평가를 통한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선정되고 있다. 해당 업계나 협회 등에서 보다 업에 필요한 직무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므로 우리 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NCS 제도 운영을 통하여 MICE 산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

CULTURE CENTRIC City; Gwangju

풍부한 예술적 감성의 문화중심 MICE 도시, 광주





예술과 문화의 울림 만나는 공간 뮤지엄 산

2015년 최초 강원지역특화컨퍼런스로 지정받은 ‘국제과 학수사박람회’에서 20여 개국의 VIP 만찬장소로 활용되었던 뮤지엄 산은 노출콘크리트의 미니멀한 건축물의 대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국내 최대 전원형 뮤지엄으로서 자연의 품에서 예술과 문화의 울림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뮤지엄 산은 오솔길을 따라 웰컴 센터, 잔디주차장을 시작으로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본관, 스톤가든 그리고 제임스 터렐관으로 이어져 있으며 본관은 네 개의 공간들로 연결되어 대지와 하늘을, 사람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건축가의 철학이 담겨있다.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이며 본관과 웰컴 센터에 위치한 두 개의 세미나실은 각각 최대 50명과 100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하다. 또한 자연의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야외 Cafe Terrace는 원주 한솔오코밸리와 인터볼고호텔에서 개최하는 MICE행사의 디너쇼와 만찬장으로 활용 가능하며 기업세미나, 컨퍼런스, 국내외 전기 및 문화예술 등 다양한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Unique Venue이다. 뮤지엄 산, 강원의 MUST VISIT의 명소이다.

조선 최고 명당에서 성공적인 행사를 호텔 프르미르

최근 개봉된 영화 "사도"의 흥행 이후 수 천 여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웅·건릉에 위치한 호텔 프르미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과 대기업, 주요 외국투자기업의 최첨단 비즈니스 산업단지 중심인 화성에 위치하고 있다. 창립 이래 30여년 간 국내 건설업의 주축을 이끌었던 모기업이 호텔 프르미르가 화성의 랜드마크로서 지역 사회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경험하게 하고 화성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부상 할 수 있도록 약 10000여평의 부지의 특급호텔을 건설했다.

239개의 편안한 객실과 국제행사 규모의 최첨단 AV시스템 장비를 보유한 5개 연회장, 600대 동시주차가 가능한 넓은 주차장 그리고 한국 최고의 명인 총주방장이 선보이는 동·서양의 맛과 미의 조화를 이루는 인터내셔널 부페 레스토랑 “더 키친”과 도심 속 힐링 산책로 “오솔길”과 푸른 하늘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로비 앞 연못 “청하연” 등은 호텔 프르미르만의 힐링을 선물 할 것이다.

예술과 함께하는 사교행사
우양미술관

보문호에 위치한 특급 호텔인 힐튼경주 내에 있는 우양미술관(구, 선재미술관)은 국내 대표 사립미술관으로서 1991년에 개관하였다. 개관 이래 국내 주요 작가들의 작품전은 물론 해외 유명 미술관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전도 꾸준히 기획해 오고 있으며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회화, 조각, 사진, 비디오아트 등의 작품들을 폭 넓게 소장해 오고 있다.

미술관 정문 맞은편에 보문호 산책로를 따라 펼쳐져 있는 야외조각공원에는 알렉산더 리버만, 존헨리, 장피에르 레이노와 같은 세계적인 현대조각가들의 작품을 전시해두었다.



도심 속 자연을 품은 한옥
오가헌

광주의 대표적인 도심인 동구 금남로에 고즈넉한 한옥 한 채가 자리하고 있다. 집, 나무, 맛, 소리, 놀이의 다섯가지 멋과 맛이 깃들어 있는 이 한옥의 이름은 오가헌이다. 1866년 지어진 오가헌은 2009년 리모델링을 거쳐 전통의 틀에 새로운 현대의 감성을 불어넣은 광주의 대표 유니크메뉴로 떠올랐다.

오가헌은 1966년 지어진 이래로 3개의 가문의 7대가 이 집을 거쳐갔다. 특히 두 번째 집주인이었던 최남주씨는 호남의 탄광왕으로 넉넉한 부를 일군 뒤 영화제작, 출판활동 등 문화사업을 활발하게 했던 지역 유지였다. 그가 주인으로 있는 동안 오가헌에서 영화 '무정'이 촬영됐으며 故손기정씨가 머물다 가기도 했다. 이런 전통이 이어져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환영만찬장, 한-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 환영만찬 등 현재도 오가헌은 VIP용 연회장 및 만찬장으로 쓰이고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금강송 뼈대에 흙과 돌 등 자연의 재료로 빚어낸 오가헌은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작은 무릉도원이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경관 세인트마레

부산 광안리에 위치한 세인트마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경관을 자랑한다. 라틴어로 '바다 위 성스러운 곳에서 예술과 학문을 논하다'라는 뜻에 걸맞게 각종 학술대회 및 전시, 행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대관이 없는 평상시에는 연인과 가족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중소규모 미팅·컨벤션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정통 유러피안 파인다이닝을 함께 접목함으로써 사람이 모이는 곳에 빠질 수 없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재료 본연의 맛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북유럽식 뉴노르딕 퀴진(New Nordic Cuisine)을 추구하면서, 봄여름가을겨울에 맞춰 제철식재료와 다양한 요리기법으로 계절마다 바뀌는 파인다이닝 코스는 연인 및 가족에게는 물론 행사와 학회를 진행하는 단체에게도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광안대교 전면 경관과 어우러진 다양한 대관공간은 딱딱한 회의장이나 호텔 연회장과는 또다른 느낌을 선사할 것이다. 7.8층 각각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공간에서는 최대 120명까지 연회가 가능하며 부산의 아티스트들과 스타트업 문화기업과의 활발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365일 다양한 전시 및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감동을 다시 한 번 인천남동체육경기장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체조경기장으로 활용된 남동체육관은 체육경기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실내공간으로 최근 대형 인센티브 단체 행사 장소로 인기가 많다. 총 8828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장에서 연회 개최 시 2300여명의 대규모 단체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 남동체육관과 도보 5분에 인접한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실외 10,538㎡, 4,974석)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행사장 바로 옆의 유니크베뉴
대구 엑스코 하늘정원

엑스코 5층 신관과 본관 연결통로에 마련된 하늘정원은 한국 고유의 정서를 그대로 품고 있다. 공중의 정원을 모티브로 푸른 잔디와 연못, 분재 등이 어우러져 건물 내에서도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한 칸에 마련된 VIP룸은 한옥의 방을 옮겨놓은 듯 다과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 국제회의 때마다 명품 유니크베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엑스코 내 약 1300여명을 수용 가능한 오디오리움과 5층 로비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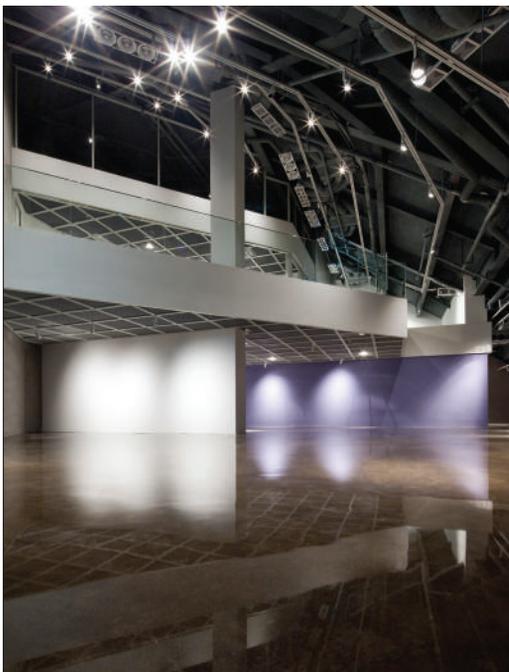
넓은 달구벌이 한눈에
대구 83타워 스카이가든

신라시대 다보탑 형태를 승화시킨 대구의 랜드마크 83타워 4층에 공원 형태로 꾸며진 스카이가든은 탁 트인 도시의 전경과 아름다운 대구의 야경을 바라보며 야외 리셉션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스카이가든 바로 옆으로 우뚝 솟아있는 83타워가 이색적인 풍광을 만들어내며 눈길을 끄는 것은 물론 타워 내 이동수단 중 하나인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며 대구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한다. 지난 2013년 리뉴얼 주요 시설을 새단장 했으며,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입점했다. 리셉션 개최 시 타워 내 상주한 다양한 식당의 케이터링 등 최상의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300~500여명 수용 가능하다.

감상자가 창조자가 되는 미술관 부암동 서울미술관

경복궁을 지나 지하문 터널을 나오면, 오른쪽에 북악산 능선을 지키는 서울성곽이 보인다. 왼쪽에 보이는 인왕산 기슭에는 현대 속에 역사가 자리한 서울미술관이 있다. 2012년에 문을 연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울미술관은 “감상자가 창조자가 되는 미술관”을 지향한다. 서울미술관은 전시회는 물론, 초청강연회, 영화상영회,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미술관은 MICE행사를 위한 유니크베뉴로서도 손색이 없다. 본관 매트릭스 홀(396.69㎡), 텍스트스 홀(165.29㎡)은 최신 설비를 갖춘 넉넉한 공간이다. 하지만 현대식의 본관 시설만이 서울미술관이 가진 매력의 전부가 아니다. 너른 미술관 안뜰 한쪽에는 역사의 현장이 숨 쉬고 있다. 바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호, 흥선대원군의 별서 석파정이다. 석파정 맞은편 야외정원에는 넓은 잔디밭과 무대가 마련되어 있어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연과 함께 즐기는 현대적 감성공간 노리매 공원

제주 노리매 공원은 자연속에서 현대적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매화가 있는 도시형 공원이다. 봄꽃 수선화, 매화, 목련, 작약, 겨울 꽃 동백과 하귤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있어 사계절 내내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숲길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기꾼 공원은 꽃과 나무, 풀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둘러볼 수 있고 제주의 곳자왈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투박한 제주의 돌과 어우러진 본관건물은 인공폭포, 인공호수와 함께 현대적 감각과 자연의 결합을 상징하고 이곳에서 실내외 특색있는 오만찬이 가능하다.

레스토랑과 카페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시설외에도 야외 공원, 인공호수 등을 활용하여 2013년부터 크고작은 기업회의 만찬과 음악회 등 이벤트를 개최해오고 있다.



수천년동안 밀물과 썰물이 오가며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던 해안 습지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공단·신도시 조성과정에서 파괴됐지만, 한려수도 남해를 바라보고 있는 순천만 갈대밭은 다행히 이러한 파괴의 손길에서 벗어나 강하구와 갈대밭, 염습지, 갯벌이 잘 보존됐다.

제17회 순천만 갈대축제는 순천지역 갈대밭이 가장 아름다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맛있는 정원, 춤추는 갈대’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밥상의 정원(원도심), 음악의 정원(순천만 국가정원), 갈대의 정원(순천만 자연생태공원)으로 나뉘어 열린다. 6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어린이, 초·중학교 학생, 시민 음악 동아리, 시립합창단과 시민, 관광객이 참여하는 합주를 통해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 모두의 축제라는 것을 부각시킨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총 40km가 넘는 해안선과 22.2km²의 간석지를 가진 순천만은 2003년 습지보호구역(갯벌 22.6km²,갈대군락 5.4km²)으로 지정됐다. 인천 옹진(68.4km²),전북 무안(35.59km²)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크다. 수산자원보전지구로도 지정된 순천만은 랍사르 협약 등록(2006),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2010), 환경부 생태관광지(2013)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연습지이다.

순천만을 찾는 철새들로는 흑두루미(228호), 검은머리물떼새(326호), 노랑부리저어새(205호) 등 천연기념물 및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희귀종 포함 총 36종이 있다. 이들이 겨울동안 머무르는 갯벌에는 갈대·칠면초·천일사초·통통마디 등의 염생식물과 짚뽕어·붉은발말뚝게·갯게 등 다양한 동물들이 순천만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습지에 다시 태어난

‘맛있는’ 풍경 순천만 갈대축제
순천만 국가정원

있다. 동천·이사천·별교천 등이 하구둑으로 막히지 않아 육지에서 흘러가는 유기물들이 갯지렁이, 새꼬막, 낙지 등 다양한 갯벌생물들의 먹이가 되면서 풍성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풍경을 가지고 있는 순천만에 최소한의 인간 손길만을 더한 것이 바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하 자연생태공원)이다. 총 1.2km 길이의 갈대숲 탐방로 양옆으로는 몽글몽글한 갈대 씨앗뭉치를 직접 만져볼 수 있으며, 대대선착장에서 순천만 S자 갯골까지 왕복 6km 코스를 오가는 순천만 생태체험선도 운영하고 있다.

자연생태공원 휘감고 흐르는 동천 동쪽에 위치해 순천만의 대표 경관인 S자수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 동시에 날씨가 좋은 날이면 갈대밭 너머 서쪽으로 지는 석양을 감상하기에 좋다. 이밖에도 겨울철새 새벽탐조투어(11월~3월, 매주 일요일)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이하 국가정원)은 총 면적 1,112km²(34만평) 규모로 2013년 개최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에는 23개국 83개(세계정원 11, 참여정원 61, 테마정원 11)등이 꾸며져 전세기(170회), 크루즈선(19회) 포함 총 440만명(외국인 17만 6천명 포함)의 관람객이 찾았다. 박람회 행사 종료 후 주요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잘 되살려 순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남권 일대의 관광 명소로 발돋움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순천만정원은 지난 9월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수목원, 습지센터, 세계정원, 습지, 참여정원 등 총 5개 구역으로 나뉜 전체 영역은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꿈의 다리, 순천만 PRT, 순천 호수정원, 세계정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국가정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순천 호수정원은 세계적 정원디자이너 찰스 쟁스가 디자인했다. 순천 주변의 산을 봉화·난봉·인제·해룡·앵무·순천만언덕 등 6개의 언덕과 호수(순천 도십)를 가로지르는 테크(동천)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밖에도 스페인·일본·미국 등 국가별 정원과 남도숲길, 에코



지오타, 수목원전망지 등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순천만 인근의 순천문화관까지 연결된 소형 무인궤도차(SKY CUBE)를 운행해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순천만 갈대축제 기간 중 가을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재즈월드 뮤지션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으로 품격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가을 주말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매직 별문쇼와 남도 음식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순천밥상 전시·시식·체험 등이 가능하다. 특히 순천만정원내 한방체험관에서는 이원일·레이먼 킴 등 유명 셰프가 자신의 음식에 대한 철학을 관광객들과 함께 에코도시락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인 ‘셰프의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셰프와 순천 지역의 조리학과 학생들이 공동 개발한 레시피를 현장에서 전시 판매하는 ‘순천의 디저트’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2014년 순천의 맛! 음식 경연대회 간식부 수상자들의 디저트도 전시·판매한다.

정선순 순천시 관광진흥과장은 “갈대축제장과 순천만 정원 외에도, 드라마촬영장, 기독교 박물관, 낙안읍성 등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관광지가 순천”이라며, “멋진 볼거리뿐만 아니라, 고들빼기, 짬뽕어탕, 순천한식, 팔진미 등 순천 대표 먹거리도 먹어야 진정한 순천을 느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 글 박태진

현명한 노후·건강한 삶을 준비한다

복지&헬스케어 전시회 SENDEX(센덱스)

국내 최대 종합 복지 산업전인 '복지 & 헬스케어 전시회 SENDEX 2015'가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SENDEX 2015는 2005년 국내 최초 정부 주최 고령친화산업 전시회로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누적 참관객 22만명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부터 7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인증마크를 획득하였다. 2014년에는 전시규모 16,000㎡, 해외바이어 25개국 702명이 참가함으로써 국내 고령친화, 장애인복지 산업의 대표 박람회로 자리매김 하였다.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특수교육 행사 국제특수교육·보조공학EXPO와 함께 스마트 에이징엑스포, 국제보조공학 박람회로 구성된 SENDEX 2015는 '안티에이징-헬스케어 특별관', '장기요양기관 특별 홍보관' 등 더욱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구성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상품, 고령친화용품, 장애인보조기기, 목욕용품뿐만 아니라 노후설계, 이민 상조장례 등 1,300만 베이비붐 세대와 700만 노후 준비 세대가 적극적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데 있어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9회째를 맞는 국내 보조공학 최고권위인 '2015 국제 보조공학 심포지엄'도 함께 개최된다. 지역특화컨벤션 연속 4회 선정에 빛나는 국제보조공학 심포지엄은 금년도에는 국내외 보조공학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보조기구 연구개발과 현황 등을 공유하는 정보 교류의 장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국내 최대 재활공학 관련 학회인 한국재활복지공학회는 심포지엄내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일본재활복지공학회(RESSA), 대만복지공학 및 보조기기협회 (TREATS) 회장단이 직접 방한하여 한국 재활복지공학회(RESKO)와 함께 한국-대만-일본 3국



협회간 '제 1회 동아시아 복지공학-보조기기회의'를 개최하고 MOA를 체결한다. 미국에서는 북미재활복지공학회(RESSA) 회장단과 피츠버그대 재활공학박사 가현욱 교수가 참가, '사용자 중심 글로벌 재활복지공학 기술'을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ENDEX 2015'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행복한 노후, 건강한 삶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SENDEX 2015' 관람객에게 건강한 노후준비를 위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학술대회 주최단체 경주로 몰린다

경주컨벤션뷰로, 대형 국내학회 유치

경주시 MICE 유치전담기구인 경주컨벤션뷰로(사장 임상규, 하이코)에 따르면 2016년에 1500명 규모의 대형 의학학술대회인 '2016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 학술대회'와 1200명 규모의 '2016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각각 4월, 5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8월 이후로는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공학학술대회인 '2016 한국질량분석학회 여름정기학술대회'와 '2016 제어자동차시스템 학술대회(ICCAS 2016)'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주최자들은 한결같이 “경주는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역사·문화도시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문단지에 위치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 놀이 시설 등 MICE 인프라가 한 곳에 클러스터화 되어있다는 점이 이번 개최지를 경주로 확정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2015년 3월 개관한 이래 '2015 한국MICE연례총회', '제7차 세계물포럼', '제60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등 국제회의 및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동안 국제회의도시 경주의 MICE마케팅을 위해 MICE얼라이언스 활동강화 및 대학생 MICE서포터즈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임상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장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주최자 및 참가자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급호텔에 버금가는 컨벤션센터 고객서비스를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한 직원 서비스 스킬 및 서비스 마인드 교육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컨벤션뷰로는 국내·외 학술대회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유치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5 대한민국 컨벤션주최자 경주MICE 설명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

다시 제주 찾는 중화권 인센티브 관광단

강서제민가신그룹유한공사 등

메르스로 위축된 중화권 인센티브 관광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강서제민가신그룹유한공사와 통이주식회사 인센티브 관광단 2400명이 9월 제주를 방문했다.

중화권 인센티브 관광시장은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컨벤션뷰로의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제주의 메르스 청적지역 유지 등을 통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강서제민가신그룹유한공사는 인센티브 관광목적지로 제주를 고려하던 중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여 타지역으로 인센티브 투어를 실행할 예정이었다. 또한 통이 주식회사 역시 당초 제주-일본 일정으로 크루즈 인센티브 투어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제주를 배제시키는 등 악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컨벤션뷰로는 메르스 종식과 함께 도지사의 주요 중국 여행사 방문, 중화권 MICE 발감회 참가, 기업 직접 방문 세일즈콜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행, 강서제민가신그룹유한공사와 통이 주식회사의 인센티브 투어를 제주로 재유치 할 수 있었다.

강서제민가신그룹유한공사는 의약, 의료건강, 토지개발을 경영하는 그룹으로 400여 명이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주상절리, 성읍민속촌 등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였고, 통이그룹은 유제품 및 라면생산 그룹으로 오는 9월 23일 2000명이 크루즈를 통해 제주도를 방문 용두암, 자연사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제주컨벤션뷰로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환영행사, 공연지원 등 참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들을 시행하고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로 지속적인 인센티브 관광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

대구의 의학·MICE역량 인정받다

2019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 유치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국제뇌과학기구(International Brain Research Organization, IBRO)가 '2019년 제10차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10th IBRO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 개최도시로 대구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2014년 9월 IBRO 세계대회 유치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스페인, 프랑스 등 총 10개 국가가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한국(대구), 중국(상하이), 스페인(그라나다) 3개 도시가 마지막 경합을 벌인 결과 총투표자수 122표중 74표를 얻은 대구가 최종 개최도시로 결정됐다.

국제뇌과학기구 IBRO는 1961년 설립되어 프랑스 파리에 사무국을 두고 전 세계 85개 학회 7만5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1982년 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 4년마다 세계 뇌 신경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개 국가 총 4000여 명이 넘는 뇌 연구 및 신경과학자들이 학술대회에 참여해 뇌과학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모색하는 최대 국제학술 행사다.

2019년 7월, 대구에서 개최될 제10차 세계뇌신경과학 학술대회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 극복과 국제공동 뇌연구를 통한 미래 신성

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계기가 될 중요한 학술대회로, 세계적인 뇌연구 석학들을 비롯해 총 4000명 이상(해외 3000명)의 뇌연구자가 참석할 전망이며, 뇌연구분야의 후발주자인 한국이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글로벌 연구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뇌연구 도약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연계해 미래성장동력으로 뇌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뇌연구의 거점이 될 한국뇌연구원을 2011년 유치, '14년 12월 준공하였고, 향후 한국 뇌병원 등 뇌정밀의학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대회 유치가 대구의 뇌산업육성에도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 유치는 지난 95년 일본 도쿄에서 한차례 개최된 이후, 아시아에서 24년만에 개최되는 대회로 그동안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2015 세계물포럼, 2017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2018 세계기생충학회, 2021년 세계가스총회 등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겨뤄 매년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큰 성과를 거둔 경험이 이번 행사유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대구의 마이스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잡한 도시를 시민에게 돌려주자

대전 도심 차없는 거리 행사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의 관문도로인 중앙로를 매월 정기적으로 차없는 거리 조성해 운영중이다.

중앙로는 옛 충남도청에서 대전역까지 약 1.1km구간으로 2015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4차례 운영된다. 지난 9월 19일(토) 제1회 “건고 보자! 중앙로 차 없는 거리”행사는 중앙로를 3구간으로 나눠 ‘문화·축제, 젊음, 만남’ 테마별 행사를 진행하였고 20만여 명의 대전시민 등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1구간(옛 충남도청~중앙네거리) 문화·축제의 거리에서는 독도는 우리땅 플래쉬 몹, 무료체력측정 등 행사를 진행하였다. 2구간(중앙로네거리 ~ 목척교) 젊음의 거리

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체험, 놀이 퍼포먼스, 청소년음악회가 목척교에서는 저글링, 마임쇼는 물론 마샬아츠 트릭킹과 아크로바틱 등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고, 3구간(목척교~대전역) 만남의 거리에서는 호국평화통일 대행진,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대전직장인밴드모임 등이 개최되어 많은 시민들의 체험하고 즐길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교통통제와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불편도 있었지만 성숙되고 질서정연한 문화 의식으로 성황리에 진행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중앙로가 원도심 쇠퇴의 상징에서 점차 희망공간으로 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익한 체험활동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고조된 가운데 걷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첫 걸음이 됐다.

대전시에서는 ‘차없는 거리’ 운영을 위해 대전시의 5개 본부·실·국과 동구청, 중구청, 경찰청, 대전문화재단, 대전마케팅공사와 한국예총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중앙로 주변 7개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이뤄졌다. 2015년 ‘건고 보자! 중앙로 차 없는 거리’는 10월 17일(토), 11월 21일(토), 12월 24일(목) 등 3회를 실시하고, 2016년부터는 매월 개최되 하반기(1~2월), 하반기(7~8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



세계 최대 천문국제학술대회 부산으로 온다!

2021 국제천문연맹총회 유치

세계 최대 규모 천문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국제천문연맹총회(IAUGA)의 2021년 개최지 최종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개최지로 확정됐다.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29차 국제천문연맹총회에서 2021년 총회 개최지 선정 결과 남아공 케이프타운, 칠레 산티아고, 캐나다 몬트리올과 치열한 경쟁 끝에 경쟁 끝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한국 부산으로 최종 확정 됐다고 밝혔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이었던 남아공은 국제천문연맹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 유럽 국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과 세계 최대 규모의 천문학 프로젝트 거대전파망원경(SKA, Square Kilometer Array) 설치장소임을

강조해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또 칠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망원경을 5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최근 세계적으로 천문학이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기초과학 분야의 선진국이면서 관광 대국 장점을 앞세웠다.

부산관광공사는 강력한 경쟁 상대와의 경합에서 부산이 유치에 성공한 이유가 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학망원경인 거대마젤란망원경(Giant Magellan Telescope)이 2021년에 완성 되는 점과 '세계인의 천문축제-Astronomy for All' 라는 주제로 개발도상국의 참가를 지원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천문학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노리오 카이후 세계회장은 “한국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개최지로서의 우수한 컨벤션 인프라, 유치위원단의 설득력 있는 유치 제안서 발표와 부산 시민들의 총회 유치 염원에 큰 감명을 받아 각국 대표단들이 부산에 손을 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부산관광공사는 그동안 회의 유치를 위해 까다로운 국내 도시 선정 심사과정과 지난해 8월 대전에서 개최된 아태천문연맹총회에서 참석한 유치 결정권자인 국제천문연맹 회장과 사무총장을 부산으로 초청해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등 치밀한 유치전을 펼쳐 왔다.

또 총회 유치 결정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2021년 국제천문연맹총회 유치 염원 행사로 부산 전 시민 희망의 별 만들기 캠페인을 펼쳐왔다.

부산관광공사, 한국천문학회로 구성된 유치단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미국 하와이 현지에서 부산 홍보관을 운영해 유치결정권자 대상 1대1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확정된 2021년 세계천문연맹총회의 한국 부산 유치를 위하여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한국천문학회 등이 공동으로 유치마케팅 활동을 펼쳐왔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후원을 받았다.

강혜성 유치위원장(부산대 교수)은 “IAUGA의 한국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 맞는 천문학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공통 언어를 통해 전 세계인을 하나로

2017 세계에스페란토대회 서울 유치

한국에스페란토협회(Korea Esperanto-Asocio, KEA)는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과 협력해 제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The 102nd World Congress of Esperanto) 유치가 성공했다. 세계에스페란토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에스페란토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오바마홀에서 2017년 7월 22일부터 29일 까지 총 8일에 걸쳐 개최된다. 외국인 1500명을 비롯해 모두 2000명이 서울에 모일 전망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1994년 서울에서 열린 제79차 세계 에스페란토대회에 이어 23년 만에 다시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이번 유치는 MICE 개최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였다. 나아가 대회 홍보 과정에서 서울시 관광 홍보 효과를 창출해낼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국제대회 유치 시에도 'MICE 도시' 서울의 강점을 부각시켜 주는 또 하나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은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한국에스페란토협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서울시는 유치클리닉 프로그

램을 통해 전문적인 영어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제작을 도왔다. 또 지난 7월 프랑스 릴에서 열린 제100차 세계 에스페란토대회에서는 유치 결정 투표에 앞서 사용할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했다. 7월 25일 대회 유치 경쟁국들이 참여한 전시회에서도 서울 홍보 부스 운영비를 지원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회원국 대표 및 협회장을 위한 만찬을 지원했으며 7월 30일 열린 '서울의 밤' 프로모션에서 홍보물로 사용될 배너, 리플릿, 기념 스카프를 제작하는 등 현장 유치 지원에도 전력을 다했다. 행사유치 과정에는 이렇듯 한국에스페란토협회의 노력과 서울시의 지원이 전 과정에 걸쳐 있었다. 그 결과 현 세계에스페란토협회장이 캐나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몬트리올을 제치고 서울 행사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세계에스페란토협회는 에스페란토를 국제공통어로 주창하여 국가 간 언어문제 해결을 통한 세계인의 평화적 화합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1905년 제1차 블로뉴쉬르메르 에스페란토대회가 시작됐으며 현재 전 세계 120개국에 회원을 두고 있다. ✨





MICE 구직자 인천에서 해답을 찾다

2015 인천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가 9월 1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2015 인천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MICE 분야 채용박람회인 ‘인천 MICE Job Fair’에 국내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기구 및 MICE분야의 특화 행사’로 운영됐다.

이날 행사는 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의 환영사 및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의 축사에 이어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 소장과 한동현 (주)마크임팩트 대표 등으로부터 글로벌 무대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이어서 MICE 분야 취업을 위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MICE의 각계 멘토 4인방의 토크콘서트인 “글로벌 MICE 아카데미”가 개최됐다. 전시전문기획사(PEO) 및 국제회의기획사(PCO),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에 종사하는 MICE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MICE 분야의 진출 노하우와 멘토로서 MICE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주어, MICE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GCF), 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UNAPCICT)와 유니세프 네팔사무소 등 각 국제기구 담당자들의 국제기구 진출 경험 사례 발표는 글로벌 무대 진출을 꿈꾸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브랜드 체인 호텔, 국내 주요 PEO 및 PCO, MICE 서비스업 및 교육 등 24개의 MICE 전문 기관 및 기업을 비롯해, 22개의 국내에 있는 국제기구 및 기관이 참여해, 진로 및 채용상담을 진행했으며, 각 기관 및 기업의 채용 모집 분야 정보는 참가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사장 게시판 및 행사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했다.

커리어페어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프로그램 안내 및 참가기업 소개, 부스위치 안내, 각종 이벤트(QR코드 찾기, 포토이벤트, 설문조사 등)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편리하고 알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



농업생명 특화 컨벤션도시로 도약하는 광주 2019 아시아오세아니아육종학회 총회 유치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 13회 아시아오세아니아육종학회 총회에서 14회 총회 개최지로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다. 아시아오세아니아육종학회(SABRAO)는 1968년 일본에서 창립학회가 개최된 이후 매 4년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약 8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또한 전문학술지인 The SABRAO Journal of Breeding and Genetics (SCOPUS 등재)를 매년 4회 발행하는 등 육종분야 전문 국제기구로 명성이 높다. 1997년 한국에서 열린 이후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될 2019년도 광주대회에는 1000여명의 국내·외 관련 분야 석학 및 연구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 된다.

국내외 농업생명 육종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SABRAO 총회 광주 유치를 위해 총 30명으로 구성된 유치단은 인도네시아 보고를 대회를 참가하며 개최지 결정권자인 SABRAO 이사회에 한국 개최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하며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공동 유치활동을 펼친 광주관광컨벤션뷰로에서는 행사전일 한국(광주) 홍보 데스크를 운영하며 광주에서 행사가 유치되는데 힘을 보탤다. 특히 전통매듭만들기 체험을 행사 전일 진행하며 한국 개최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광주의 국제회의 개최 경험, 발전된 MICE 인프라 등을 강조하며 임원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말레이시아와 유치 경합이 있었으나, 한국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 결과 SABRAO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광주 개최가 확정되었다.

농업분야 최대 국제행사로 평가받는 '2014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광주총회가 60여개국 1천 500여명이 참석하며 성공적인 개최된 가운데 농업생명 육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제 14회 아시아오세아니아육종학회(SABRAO) 광주총회는 2019년도에 개최될 예정이다. 농업기반 관련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기관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되면서 관련 연구, 산업 인프라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농업생명 관련 국제회의의 최적지, 농업생명 특화 컨벤션도시 광주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



“문화와 융합한 관광·MICE 랜드마크 역할 기대”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국가적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드디어 문을 연다. 문화융성에 기여함은 물론 광주의 MICE 콘텐츠로서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다. 개관 이전부터 벌써 굵직한 국제행사도 예정돼 있다. 광주가 가진 ‘문화의 도시’ 브랜드와의 조화 또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광주의 랜드마크 역할이 예상되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으로부터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개관을 앞두고 아시아문화전당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1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문을 여는 만큼, 개관일인 11월25일부터 차질 없는 전당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우선 민주평화교류원은 11월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5.18 열흘간 이야기를 기승전결 서사구조에 따라 예술적으로 승화한 상설전시 콘텐츠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다른 원들은 개관 시점에 맞춰 개관 콘텐츠를 공개

할 예정이며 개관 이전 10~11월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미리 선보일 방침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소개하자면.

“아시아문화전당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문화전당은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추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전당은 창·제작 기능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해나가는 핵심 터전이 될 것이다. 문화전당은 대다수의 다른 문화예술 기관과 같이 소장품을 보유한 기관이 아니다. 이곳은 전시관, 도서관, 그리고 콘텐츠 창작센터, 공연장 등이 다 합쳐진 융합적 공간이며,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이다. 하이테크놀로지와 문화예술을 접목해 새로운 장르, 새로운 창조산업의 모태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

시아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같이 모여 창·제작을 하고, 문화예술을 기초로 한 창조적 산업을 일으키는 생산적 기능의 장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콘텐츠 산업과 문화 역량도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MICE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시아문화전당은 관광객 유치 및 수익창출을 위해 MICE사업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예를 들어 내년 6월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7차 ASEM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화예술에 특화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기구인 유네스코 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이 개설될 예정이어서 유네스코와 관련된 다수의 전문가 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전당 5개원의 연간 운영 계획을 토대로 MICE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교류원 탐방 및 체험, 특별전시 및 공연 등 MICE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표적시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전당은 1일 3회(오후 1시, 2시반, 4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acc.go.kr)의 ‘전당 투어’ 프로그램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전 신청을 한 경우 외국어 안내를 받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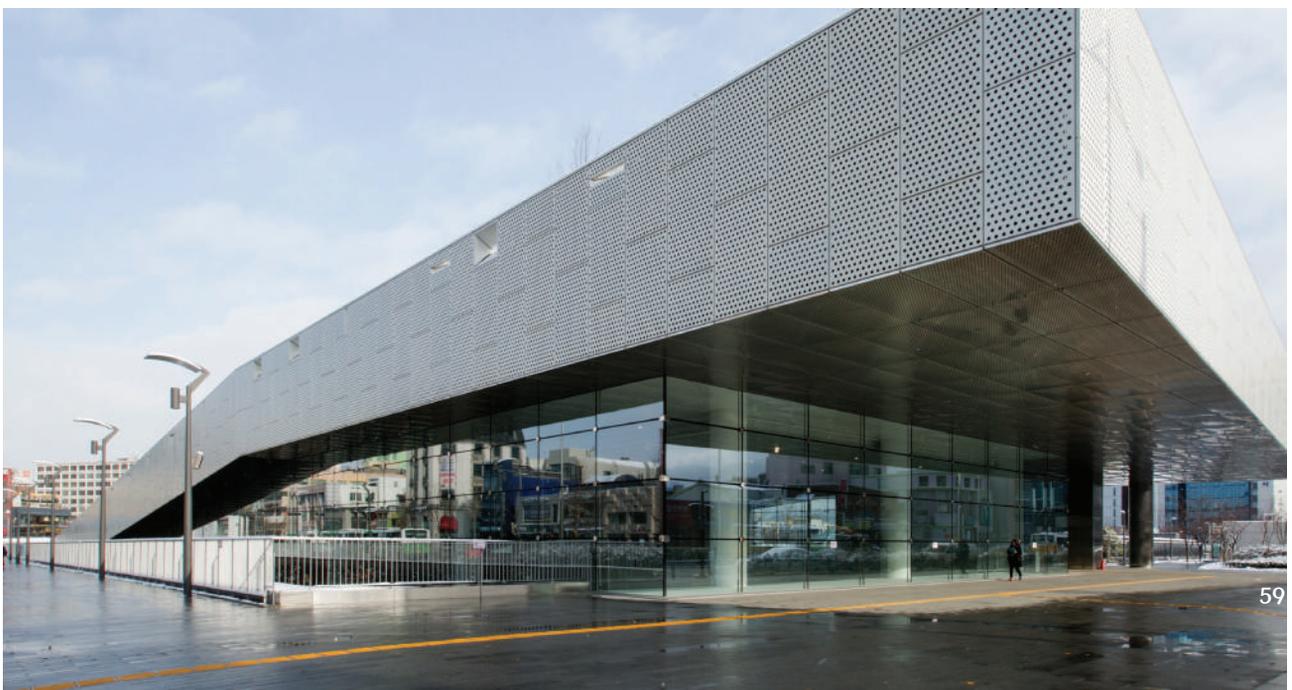
있다. 또한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외국어 설명이 같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도 무리 없이 전시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문화예술기관이나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포럼, 협력, 또는 작가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교류가 이루어진다.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의 수요와 장점을 교환하는 매개로서 문화전당이 국가브랜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양적 성장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아시아 사회에서 기여하는 질적 성장의 상징적 랜드마크로서 문화전당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곳을 아시아 각국이 필요에 의해 참여하는 자발적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 지역이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나아가 문화전당은 문화 소비적 측면에서 전시·공연장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당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쇼케이스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공간은 대관이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시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장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융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

글 강수정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하고 싶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양 과학기술의 진흥을 돕고, 연안 및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여수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발판이 되고자 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천혜의 바다를 품고 있는 여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3년 동안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로 성장해왔다. 사실 여수가 ‘내일러’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고,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중심에는 신평식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의 과감한 시도가 있었고, 그 뒷받침엔 재단직원들의 철저한 노력이 있었다.

“여수 엑스포 이후 펜스를 허문다는건 그 당시 획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누구나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결단을 내린거죠. 13년 4월에 재단이 정식 출범한 이후 직원들과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중국관광객 유입 활발, 체험하고 머무르는 공간 만들기 위해 노력”

신평식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SOC구축에 10조원이 투입돼, 서울-여수간 차량 3시간 30분, 철도 2시간 40분, 여수공항 박람회장 간 20분이 소요되어 박람회장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이 덕분에 30여 년간의 도시재생의 압축효과를 이뤄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간혀있던 여수가 인프라를 갖추면서 새로운 길이 열릴거죠. 박람회장 내 위치한 크루즈터미널은 15만톤급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도해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의 뛰어난 자연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크루즈를 연계한 대규모 인센티브 행사 유치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수려한 볼거리와 체험시설이 가득하다.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케이블카, 레일바이크, 오동도 등의 관광시설이 집적화돼 있고, 인근 순천정원박람회장, 광양매화마을, 보성녹차밭 등 천혜의 관광자원들이 있어 매력적인 MICE 개최지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아쿠아플라넷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족관으로 세계적인 희귀동물 벨루가, 바이칼물범 등 280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필수 코스라 각광받고 있는 ‘스카이다워’도 추천합니다. 이곳은 시멘트 사일로를 개조한 전망대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로 연주하는 옥외 파이프오르간 연주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관광객들은 드넓은 남해 여수밤바다의 화려한 야경, 밤만 되면 화려하게 열리는 빅오쇼, 넓게 트여진 천장의 대형스크린을 통해 대규모 디너쇼 등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엑스포디지털갤러리에 감탄한다고 한다.

“밤이면 더욱 아름다운 빅오쇼는 워터스크린, 분수, 안개, 화염, 레이저, 조명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오감을 충족시킵니다. 여수엑스포의 대표적인 행사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The Theme and Entertainment Association으로부터 ‘올해(2012년)의 쇼’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최대 70미터 크기의 초대형 해상분수로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돼 밤문화를 리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물 덕에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입장객수가 247만 명으로 전년대비 38%증가했고, MICE 개최건수



로는 9월말 기준 전년대비 128%가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재단 내 위치한 MICE사업과는 박람회장의 회의 및 전시시설에 학회, 협회 기업 등의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고, 원활하게 개최되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2015행복학교박람회, 제2회 업사이클링페스티벌, 제10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경영관련 통합학술대회 등 123건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신이사장은 여수세계엑스포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수-제주 카페리 운항으로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관광객의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하루종일 즐기고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글·사진 한영선

첫 인사부터 인터뷰 끝까지 유쾌했다. 즐겁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는 MICE산업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방송 기획과 진행에서 발생한 에피소드, 그리고 MICE인이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다양한 주제가 자연스레 등장했다. 최근 MICE산업에서 화제를 몰고 다니는 '김병장의 MICE! NICE!'의 진행자 뺑속까지 웃긴 개그맨 김성규, 현병수씨,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더욱 화사해 보이는 장선영 아나운서를 만났다.

김병장의 MICE! NICE!는 국내 최초 MICE 전문 토크쇼다. 김병장이란 이름은 김성규의 '김', 현병수의 '병', 장선영의 '장'을 붙여 만들어졌다.

아직은 대중에게 조금은 낯선 MICE산업. 개그맨과 아나운서인 이들이 어떻게 MICE를 접하게 됐을까. 만남은 우연에서 시작됐다. 장선영 아나운서는 처음 한국경제TV 입사 후 MICE광장 진행을 맡으면서 MICE와 만남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몰랐던 MICE산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작가 등 제작진과 열심히 공부하며 MICE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성규 개그맨과 MICE 만남 역시 우연에서 시작됐다. 김성규 개그맨은 “경주에서 진행된 마이스연례총회 사회를 맡으면서 MICE를 처음 접했다”며 “당시 현장에서 협동하며 행사를 진행하는 MICE인들과, 열정 가득한 MICE인들을 만나면서 MICE매력에 빠졌다”고 말했다.

우연의 정점에는 현병수 개그맨이 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성규 개그맨의 소개로 MICE를 접했다. 김성규 개그맨은 “내가 느낀 MICE산업 매력을 동생과 함께 나누고 싶어 소개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세 사람 모두 우연한 기회에 마주한 MICE에서 '사람'이란 매력을 발견했다고 입을 모았다. “개그맨과 아나운서란 직업은 대중과 함께 하는 직업이잖아요. 많은 분들과 공감하며 함께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호흡하며 하나의 회의, 전시를 완성해



배꼽 잡는 유쾌한 대화! MICE산업을 알리다!

김병장의 MICE! NICE!
진행자 개그맨 김성규·현병수
아나운서 장선영

나가는 모습, 그리고 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돼 보다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는 MICE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김병장의 MICE! NICE! 역시 MICE매력에 빠진 이들의 우연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한병수씨와 김병수가 팟캐스트를 기획하던 중, MICE산업 이야기를 전하는 팟캐스트를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여기에 장선영 아나운서가 합류하면서 세 사람이 함께하는 김병장의 MICE! NICE!가 본격적 준비를 시작했다.

“개그맨 두 명에서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MICE를 잘 아는 장선영 아나운서에게 부탁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매력에 빠져 함께 하는지 알았는데, MICE에 대한 열정으로 결정한 것이더군요. 함께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의 지향점은 이들이 느낀 MICE산업 매력을 대중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최초 기획했던 팟캐스트보다 현장 중심의 토크쇼가 낫다는 판단아래 MICE! NICE!를 기획했다.

“사실 MICE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 돼 있잖아요. 휴가를 떠나고, 관광을 즐기고, 전시회를 관람하면서도 MICE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점은 늘 안타까웠습니다. MICE산업이 보다 많은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 창구가 되자는 목표를 갖고 본격적 기획에 나섰습니다.”

방송은 시작부터 시끌벅적하다. 두 개그맨의 화려한 춤사위와 더불어 평소 차분했던 장선영 아나운서의 색다른 춤까지. 한 번 보면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가볍기만 하지 않다. 때론 본인들이 느낀 MICE산업 내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지적한다. 이들은 “MICE현장에서 저희는 기획자가 아닌 진행자로 참가한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MICE 이야기를 통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 2회를 지나 3회를 준비하고 있다. 더 재미있는 방송을 위해 세 사람은 일주일에 4번 이상 만나 회의를 한다. 단계적으로 MICE를 알리기 위한 단계적 기획, 아카데미 등 교육적 특집, 업계 종사자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개그맨들의 회의도 이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에서 MICE산업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3회 방송은 지역 간 MICE산업 격차가 큰 현재, 방송을 통해 정보 및 산업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MICE산업 발전에 열정을 쏟고, 자체 행사를 진행하는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의 MICE산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축제가 집계만 500개가 넘고, 집계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면 셀 수 없는 현재, 단순 MICE방송을 넘어 MICE와 축제를 연계해 융·복합창조 MICE산업이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다.

이들은 “지역 축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오랜 기간 받아왔다”며 “현장에서 축제를 더욱 즐겁게 하기 위해 김병장의 MICE! NICE!가 함께하고, 현장에서 축제와 연동된 다양한 주제회의 등이 진행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창조 MICE,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부탁하자 “재미로 가득한 방송으로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MICE산업을 알릴 것”이라며 “저희 방송과 함께 성장하는 MICE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업계의 보다 큰 관심”을 당부했다.

“MICE산업의 산낙지가 될 것입니다. MICE 이슈, 지역 MICE산업, 축제 등 다양한 주제에 둘러싸여 그 속의 이야기를 저희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글·사진 박기범

유연한 대응으로, 매력과 비즈니스를 확대

‘제한’이 아닌 ‘계약’을 철저히

게라인트 홀트
(주)The J Team 대표이사



호주 최대 DIY 체인인 ‘MITRE 10’이 2013년 일본 인센티브투어를 진행했다. 기업이 전액을 부담하는 다른 인센티브투어와는 달리, 기업과 참가자가 비용은 절반씩 부담했다. 매년 80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가족 등 게스트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성원은 개인으로 대부분 남자다. 일본 인센티브투어 행사에는 10명가량 줄어든 70명이 참석했는데, 일본이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높은 물가로 인해 참가를 꺼린 탓으로 여겨진다.

- MITRE 10 인센티브 상세내용은?

보통 4박5일~5박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행사는 6박7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오사카(3박), 도쿄(3박) 관광 후 나리타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데 이것은 장기 체제의 사례다.

첫날 늦은 시간에 도착해 공항에서 가까운 세인트레지스호텔 오사카에서 환영회를 진행했다. 둘째날에는 교토지역 관광 후 저녁에는 교토의 요정(여러가지 음식과 술을 파는 집)에서 게이샤 춤을 감상하는 ‘연회 놀음’ 체험을 했다. 3일차에는 타이코엔(太閤園)에서 포장마차 등 일본의 마쓰리를 즐겼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타이코엔의 대표 메뉴가 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 4일차에는 신칸센을 타고 하코네를 거쳐 도쿄로 이동해 콘래드 도쿄에 투숙했다. 도쿄 관광 코스에는 참석자들과 관계있는 일본 DIY 샵 시찰도 포함됐다. 가게들이 매우 바쁜 토요일에 시찰이 진행된 터라 새벽에 관계자 브리핑 후 오전 자유 시찰로 진행됐다. 인센티브투어 참석자들은 일본DIY샵의 제품 배치 등을 관찰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획득했다. 그날 오후와 다음날 오전에는 단체 관광이 이뤄졌고, 오후 자유 관광을 마친 뒤 밤에는 고별파티가 진행됐다.

- 외국인이 바라 본 도쿄의 관광 포인트는 어디인가?

아사쿠사와 스카이트리, 하라주쿠와 메이지 신궁이다. 최근 아시아국가 관광객들이 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지역의 기업 인센티브투어에는 아사쿠사와 하라주쿠를 돌아보는 반나절 관광이 단골 코스다. 한편 인센티브투어 참가자들은 일반 관광객처럼 ‘일본에 가고싶다’는 생각에서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오게된다. 물론 낯선 곳을 방문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지만, 일본 전통사찰에서의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경할 수 있도록 1시간정도만 보내면 충분하다. 반면 구성원 중에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게 된다.

- 도쿄 환송 파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주최자 기획담당자가 이전에 국기관에서 스모를 본 적있는데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이번 행사에서도 국기관에서 파티를 개최하고 싶어했으나 일정이 맞지않아 국기관을 빌릴 수 없었다. 대안으로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스모를 테마로 한 파티를 진행하게 됐다. 환송파티가 열리는 주말에는 주요 호텔 행사장들이 결혼식이 많아 분위기를 살리기 어려운데, 도쿄 국립박물관은 비용이 증가되더라도 이러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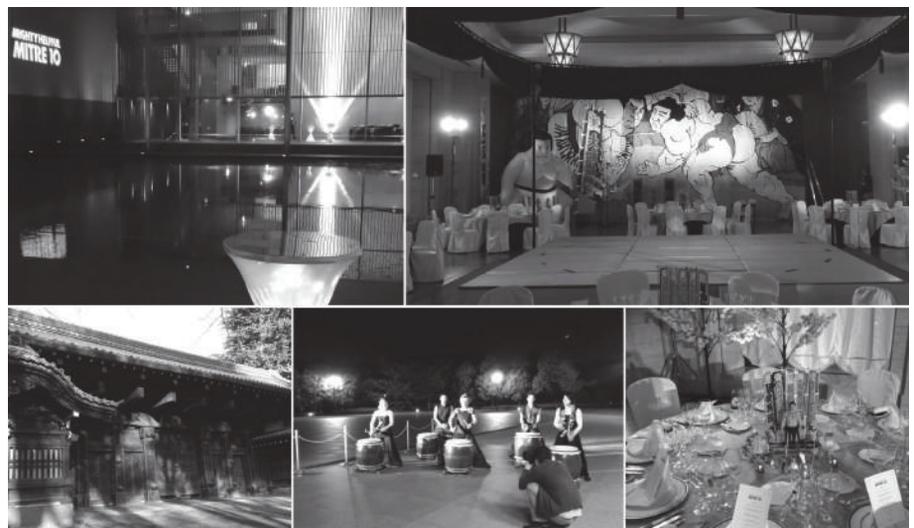
를 해결할 수 있다. 중요 문화재의 쿠로카도 사이로 입장해 호류지 보물관에서 카테일을 마시고 진짜 일본적인 공간인 헤이세이관에서 씨름을 주제로 한 만찬이 진행되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어떤 문제가 있을까?

도쿄국립박물관 직원들의 협조가 도움됐다. ‘호류지 보물관 앞 연못물을 빼면 무대설치가 가능하다’ 등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몇 시까지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다음날 아침 9시까지만 원상복귀되면 늦게까지 사용해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호텔이 입지한 곳에 심야까지 영업하는 바나 라운지 등을 고려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어떤 미술관을 파티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문의했을 때, 바닥이 대리석이라 레드와인은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도쿄국립박물관은 제공해도 되지만 바닥에 레드와인을 쏟았을 경우 청소를 부탁했다. 수억엔짜리 행사에서 레드와인이 필수적이라면 무조건 안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최자가 보험을 들고 진행할 수 있어 보다 융통성 있는 행사 기획이 가능해진다.

- 일본 인센티브 관광 확대를 위한 의견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라 철저한 ‘계약’을 통한 일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안심하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어 계약’이 필요하다. 다만 개별 시설별로 계약을 준비하기 보다는 공통된 계약안을 만들고 시설별 차이점을 담은 추가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유산을 행사장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났지만 ‘보호’라는 문제 때문에 실제 이용에는 제약이 가해진다. 이러한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 이용과 관련된 위험성과 처벌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관측부는 호텔의 꽃이라 불립니다. 상품기획에서부터 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해 호텔의 모든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더 플라자 호텔에 11년째 근무 중인 최용신 팀장은 입사지원서류를 작성할 때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근무해보였고, 수많은 호텔 리스트 중 유독 더 플라자 호텔이 끌려 지원했다. 입사하고 나서야 진정한 천직임을 느꼈다고 한다.

“호텔에 들어온 뒤 5년 동안 인사팀에 근무했습니다. 인사팀에서 호텔 모든 직원의 채용과정을 지켜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죠. 첫 단추부터 사람들과의 인연

을 중요시 하는 부서에서 시작하게 된거죠. 인사과에서는 호텔내부의 직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관측부는 호텔의 생존을 위해 외부사람들과 소통해야만 하죠. 그 치열한 현장에 있어보고자 관측부로 옮겼습니다.”

그는 신입시절 ‘뭐가됐던 일단 무조건 부딪치고 깨져 보고 겪어보자고 다짐했다.

“신입시절에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생소한 기업들을 많이 방문했죠. 약속이 분명 되어 있었지만 바람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자동유리문 넘어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인 터폰으로만 얘기하며 필요없다고 손을 내저으며 떠밀렸을 땐 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문전박대 당하면 창피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배탈 난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최 팀장은 ‘호텔의 전 직원이 내게 달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고객과의 만남들을 기록했고, 접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 노력 중 하나는 11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동시간을 쪼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

“어떠한 관계자들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외토픽,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책, 실생활정보 등 방대한 자료들을 짬날 때 마다 수집하고 공부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혹은 출 퇴근길에, 잠 들기 전에 쪼개서 읽죠. 그 많은 이야기 중 하나는 상대방이 꼭 공감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수다 떨 수 있는 친근한 지배인이 목표라는 최 팀장은 관측팀 지배인으로써의 가장 기본자질은 호텔 내부의 모든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일즈부서의 의무와 책임은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호텔 경영, 호텔의 잠재시장, 시설의 모든 상황에 정통해 호텔 산업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죠. 호텔의 형태, 규모, 입지, 경쟁상황, 목표와 목적, 객실 형태, 회의와 행사 등 호텔이 돌아가는 내부의 모든 일은 늘 꿰뚫고 있어야 해요.”

최근 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새내기 팀장이라 어깨도 무겁다.

“제 곁에 있는 팀원들의 역량을 발굴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도 제 몫이라 생각해요.” ✨

“모든 상황에 귀 기울이는 친근한 지배인이 목표”

최용신 더 플라자 호텔 팀장





“MICE 통해 서비스업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파”

김영철
키멕스그룹 대표

“외국인 만나기 즐거웠고, 다른 언어를 공부하며 여행할 때 행복했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하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좋아했습니다. 또 사회에 뭔가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철 키멕스그룹 대표가 들려 준 회사소개 문구는 인상적이었다. 그는 대한석유협회에 입사해 16년 간 근무했다

“그 곳에서 해외 주요산유국과 국제 협력 사업을 기획해 정부부처에 제안해 정부예산을 따내기도 했고, 해외 인사와 교류가 잦아지게 됐죠. 덕분에 세미나, 연수, 행사 등을 진행하며 MICE산업을 알게 됐습니다.”

협회에 근무하며 홍보팀, 전략기획팀 등을 거쳐 석유와 관련된 전문 지식들에 정통할 수 있었고, 때때로 수개월을 밤새워 준비한 행사가 통과되지 못한 적도 있었다. 한번 사는 인생에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원하는 행사들을 직접 시도해보며 가슴 떨리는 일을 해보고 싶었던 그는 키멕스를 설립했다.

“제게 MICE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정점입니다. 저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2009년에는 아쉽게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오랜 노하우와 특유의 섬세함으로 전력투구해 11월 ‘Tech-Petro Asia(아시아 정유 및 석유화학 기술컨퍼런스) 개최에 성공하게 된다.

“석유협회에서 일한 경험으로 석유개발부문의 절차나 관련 회사들을 잘 알고 있었고, 입찰공고서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기획 부분에서 타사를 앞질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6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발휘된 것 같습니다.”

당시 경쟁업체들은 프로그램 기획을 전혀 해오지 않았다고 한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덕에 목표한 참가인원의 세 배인 900명이나 참석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때 부산시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김대표는 직원들의 가치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서비스업의 자산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전부예요. 모든 업이 다 그렇지만 PCO업은 고객의 요구를 잘 만족시켜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사를 수행하는 사람의 언어능력, 전문적인 지식, 친절한 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김영철 대표는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키멕스는 프로그램 기획과 연사섭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어지간한 행사는 주제만 던져주면 세션 내용을 기획하고 연사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좋은 연사섭의를 위한 방안 등이 다른 곳보다 꼼꼼하다고 생각합니다.” ✨

글·사진 한영선

코리아 마이스 캘린더

서울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2015.11.2~6
 코엑스
 국토교통부, 서울시
 1688-3612
www.piarcseoul2015.org/wrcs



제6차 국제식품기능학술대회

2015.11.22~25
 코엑스
 (사)한국식품과학회
 053-746-9969
www.icoff2015.org



아시아 동물원 수족관 교육자 국제총회(AZEC)

2015.12.7~12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서울동물원
 02-500-7710~2
www.azec2015.com/index.php



한국전시산업전

2015.12.17~18
 코엑스
 한국전시주최자협회
 02-567-5311
www.expoexpo.or.kr



대구

아시아 오케스트라 심포지엄

2015.10.23~11.20
 대구시민회관
 대구광역시연합회
 053-250-1400
www.daegucitizenhall.org/citizen



제 18회 TCI 글로벌 컨퍼런스

2015.11.3~6
 엑스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053-746-9963
www.tci2015.org



2015 ISES 국제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

2015.11.8~12
 엑스코
 국제태양에너지학회
 053-746-9967
www.swc2015.org



2015 대구기계산업대전

2015.11.25~28
 엑스코
 대구광역시
 053-601-5229
damex.co.kr/kor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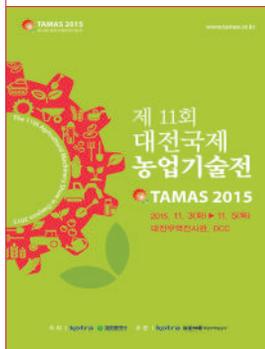
금속재료학회

2015.10.28~30
대전컨벤션센터
포스코
02-557-1090
www.kim.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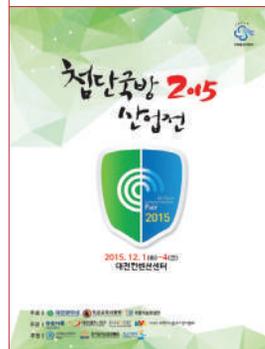
TAMAS

2015.11.3~5
대전무역전시관
코트라, 대전광역시
042-250-1357
www.tamas.or.kr/kr/main.asp



첨단국방산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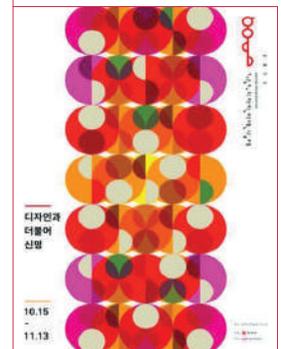
2015.12.1~4
대전컨벤션센터
대전광역시
042-250-1342~3
www.hi-defense.or.kr/index_01.asp



광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15.10.15~11.13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광역시
062-611-5144
www.gdb.or.kr



2015국제디자인총회(IDC)

2015.10.17~23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02-398-7959
www.2015idc.org/html_kor



광주세계김치축제

2015.10.24~28
광주 김치타운 일원
광주광역시
062-613-3993
kimchi.gwangju.go.kr



아시아문화포럼

2015.11.24~26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아시아문화포럼추진단
062-530-0323
www.asiacultureforum.kr



가원

2015 동계학술대회

2015.12.16~18
평창 보광휘트니스파크
한국정보과학회
02-588-9247
c.kiise.or.kr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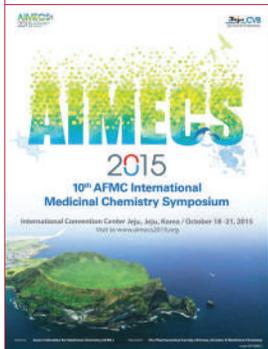
2015추계학술대회

2015.12.16~18
정선 하이원리조트
한국정밀공학회
02-518-0722
www.kpsp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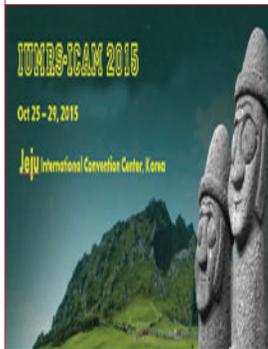
제10회 국제화학약학심포지엄

2015.10.18~20
ICC JEJU
대한약학회
02-584-3257
www.aimecs2015.org



첨단재료 국제학술대회

2015.10.25~29
ICC JEJU
한국재료학회
02-566-4496
iurns-icam2015.org/html/sub01.html



제54차 대한핵의학회추계학술대회

2015.10.31~11.4
ICC JEJU
대한핵의학회
02-745-2040
aocnmb2015.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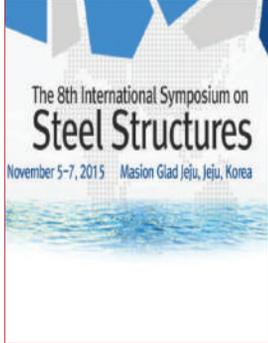
아시아시뮬레이션 컨퍼런스

2015.11.4~7
하얏트리전시제주
한국시뮬레이션학회
031-278-5255
www.asiasim.org



제8차 세계강구조심포지엄

2015.11.5~7
제주그랜드호텔
한국강구조학회
02-400-7101
iss-2015.kr



경기

2015 복지·헬스케어전시회

2015.11.5~7
킨텍스
킨텍스
031-995-8092
www.sendex.co.kr



2015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2015.11.5~8
킨텍스
경기도
031-259-6531
www.gfair.or.kr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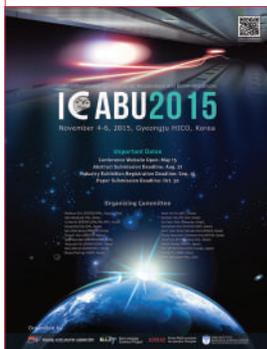
Inside Bitcoins Conference&Expo 2015

2015.12.9~11
 킨텍스
 Meckler Media
 031-995-8076
 www.insidebitcoin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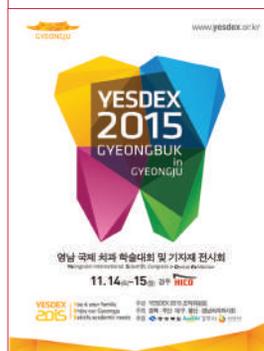
ICABU2015

2015.11.4~6
 하이코
 포항가속기연구소
 054-279-1050
 pal.postech.ac.kr/icabu2015



2015 YESDEX

2015.11.14~15
 하이코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053-421-7649
 www.yesdex.or.kr



2015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2015.11.18~21
 하이코
 한국자동차공학회
 02-564-3971
 www.ksae.org



부산

2015 IEEE 센서스 국제 학술대회

2015.11.1~4
 벅스코
 한국센서학회
 02-2071-6616
 ieee-sensors2015.org



2015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2015.12.3~5
 벅스코
 (주)리컨벤션
 070-4672-3782
 globalwomenforum.org/2015



인천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 2015

2015.11.1~3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사)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AEFC)
 032-834-3715
 www.aeforum.net



창원

나노피아 2015

2015.11.12~13
 창원컨벤션센터
 경상남도
 055-210-6107
 www.nanopia.org



The MICE, 경계를 넘다 크리에이티브 그룹

(주)온페이퍼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그룹 (주)온페이퍼크리에이티브는 2011년 설립됐다. IMC를 기반으로 국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컨벤션, 프로모션, 전시, 이벤트 등의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Creative Company로서 실력과 능력을 모두 인정 받아왔다.

2015년 MICE 사업부와 사내 연구소를 신설, 정부, 공공 사업 분야에 진출하여, 오랫동안 기업 컨벤션을 통해 쌓은 차별화된 경험과 감성있는 기획을 통해, 단기간에 정부 3.0박람회 인터랙티브미러를 통한 “미래형 생애주기 시뮬레이션” 전시 및 국립생태원 주최의 야생조류의 HPAI 국제심포지엄, 그리고 국가보훈처 주최의 광복 70주년 기념 제4회 애국가 부르기 UCC공모전 등의 업무 수행하는 등 아이디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안정적인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전문기업이다.



품격이 다른 경호·경비·의전서비스 전문기업

(주)잡마스터

(주)잡마스터는 각종 전시행사장, 스포츠행사장, 문화공연행사장, 컨퍼런스 등에서 질서유지, 안전사고방지, 화재예방 및 초동조치, 출입통제, 의전 등을 수행하는 프리미엄급 경호, 경비, 의전서비스 전문기업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신의와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고객과 고객사와 평생을 함께 하는 좋은 파트너 기업으로 기억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호·경비·의전서비스, 인력·아웃소싱·근로자파견서비스, 시설종합관리(전기·기계·냉난방, 주차관리), 청소·위생관리(청소, 방역·소독, 외벽청소), 교육·출판(경비지도사, 경비원실무, 서비스교육)의 연관사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실적으로는 ‘2014 오토모티브위크(Automotive Week 2014)’ 행사장 보안, G20 경제사절단 의전 등 다양한 인력 파견을 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책임있는 기업입니다.

